





충청남도의회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 충청남도 의회소식

VOL. 82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 충청남도 의회소식

# 82

## CONTENTS



개회사	2
본회의	4
찾이슈	5
의원논단	7
도정·교육행정 질문	10
긴급현안 질문	15
5분 발언	17
현장의정	31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33
결의안 및 건의문	45
주요안건 처리현황	55
연구 및 토론	70
포토의정	89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나긴 겨울의 터널이 따스한 새 봄의 기운을 시샘하는 시기에,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비회기 중에도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시고 각종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들에 대해 잘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1차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역사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비록 북미 정상회담 최종 합의가 결렬되었지만, 3·1절 100주년 대통령 기념사에서 언급하였듯이 북미 정상이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진전이며,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향후 북미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국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더욱 견고하고 담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 그동안 우리는 3·1운동의 대표적이며 상징적인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의 훈격이 너무 낮음을 꾸준히 제기해 오며, 그 서훈등급을 상향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훈등급 최고 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의 상향조정은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고귀한 희생에 대한 기억과 기념에는 한계가 없어야 하기에,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 하겠으며 이번 서훈조정을 기회로 국내를 넘어 세계속으로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가일층 선양해 나가는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더불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적으로도 다채롭고 의미있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에 부응하여 3·1 평화운동 백년의 집 건립,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 등 100주년 기념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특히 3·1운동 전야제와 100주년 기념식 등 대대적인 행사를 통해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는 이를 계기로 삼아 조국의 국권회복을 위해 초개와 같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계승해 나가는 데 좀 더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달 22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처음으로 전국에서 시행되어 우리도에서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나 이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충남은 노후 경유차 등 도로이동 오염원 비중이 높은 수도권과 달리, 산업체 배출량이 미세먼지 발생 요인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일시적인 비상저감 조치의 한계를 벗어나 대통령의 검토 지시사항인 만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의 보다 근본적이며 실질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우리도의 2020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2019년 대비 3,737억원이 증가한 6조 7,600억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소관부처와의 적극적인 밀착 협의를 통해, 우리도의 주요사업들이 중앙부처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층 더 섬세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이 지난달부터 다음달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생활 밀접시설과 사회기반시설 중 최근 사고 발생 여부나 노후화 정도를 고려해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진단결과에 따라 정밀점검과 보수, 보강 등 면밀한 사후조치로 우리 지역에서는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겨울 우리지역에 다행히 구제역과 고병원성 AI의 발생은 없었습니다. 이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방역활동에 혼신에 힘을 다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생가능성이 상존하는 3월말까지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과 빈틈없는 예찰, 검사 등의 철저한 방역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편,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땅위로 나오려고 꿈틀거리는 경칩을 지나 어느덧 춘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농촌에서는 본격적인 일년 농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봄 가뭄을 대비해 농업기반시설 및 대형관정 정비 등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해빙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매년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해, 도와 시·군 그리고 관련 기관의 긴밀한 공조체계 강화와 사전 예방활동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는 새 학기가 시작되며,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아이들이 아직은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더욱 따뜻하고 세심한 지도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는,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10회 임시회는 3월 18일부터 12일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2019년도 추경예산안 그리고 주민 밀착형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더욱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민생현장 중심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과 교육 행정 전반을 살펴봐 주시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2019년 주요 사업들이 보다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집행부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당면한 현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현안의 돋보기가 되어, 궁극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이 추구하고 220만 도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며, 알토란 같은 충청남도를 옹골차게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겨울 산수유 열매를 애타게 적셨던 삭풍도 지나가고, 곱디고운 봄의 향기가 수줍은 듯 피어나지만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모쪼록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22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18.

충청남도의회 의장 유 병 국

# 본회의

## 제310회 임시회 폐회... 40개 안건 심의

• 도민 복리 증진 위한 예산안 2건, 조례안 25건, 동의안 6건, 결의·건의안 3건

## 의견제시 1건, 위원선임 2건, 긴급현안 1건 등 40개 안건 심의

•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긴급현안 질문 등 심의



3월 29일 제3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0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안 2건, 조례안 25건, 동의안 6건, 결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위원선임 2건, 긴급현안 1건 등 총 40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원들은 5분 정책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을 나열, 대응책을 촉구했다.

5분 발언을 통해 8명의 의원들은 '충남 청소년 지도사 임금 및 처우' 및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등 도민과 밀접한 관련사항 등을 처리했다.

김동일 의원은 '충남 청소년지도사 임금 및 처우'와 관련된 5분 발언 자리에서 "충남의 36만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는 유능한 청소년지도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영신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주제로 한 5분 발언을 통해 "급증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옥수 의원은 "충청남도 다문화 가정 관련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결혼이민자의 경우 초기 정착부터 일자리 문제, 최대

현안인 자녀문제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편견과 차별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영 의원은 "충남의 노동권과 건강한 노동문화를 위한 제언"을 통해 "'근로'가 '노동'으로 바뀔 때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미래의 주역인 우리의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 시 안전이 보장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으며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계양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관련된 5분 발언 자리에서 "우리 충청도가 환황해권 중심지로서 중국과 북한, 동남아시아 무역의 전초기로서 충청도의 당진항, 대산항을 통해 황해남도 해주항, 평안남도의 남포항과 통항할 수 있도록 도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명숙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충청남도는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통해 "3월초 문재인 대통령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검토 지시와 조기폐쇄 예정시기를 당기겠다는 산업부의 입장에 발맞춰, 충청남도도 기한 연장 저지를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강력히 주장했다.

정병기 의원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5분 발언 자리에서 "교육청 소속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를 통해 장애학생의 체육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군에 배치된 지도자들은 신규 재가 장애인에 대한 체육서비스 제공에 집중해야 한다"며, 교육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훈 의원은 "국립국악원 분원은 충청의 중심 공주로!"라는 5분 발언을 통해 "공주시에 국립국악원 중부분원을 유치 시 시민들에게 전통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인근 지역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 오는 관광객 증가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유병국 의장은 "도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 등이 임시회를 통과했다"며 "앞으로도 도민 복리 증진 등 도민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는 도의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ot Issue



## 도민의 복리증진 위해 앞장서 일하는 의회像 정립

- 199건의 안건 의결 등 도민 소통 및 각종 현안해결 앞장
- 활발한 의정활동 통한 도민복지 및 지역발전 증진 다짐

충남도의회는 1월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도민복리증진에 앞장서 일하는 의회가 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특히, 도민들과 소통에 주력하고 열린의정, 공감의정, 책임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도민들과 소통하며,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에 의정역량을 집중했다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 2018 성과와 보람

도의회는 민선 7기 업무보고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정이 나아갈 방향과 원칙 등을 바로 세우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예산의 적정배분과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이 모든 도민에게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조정했으며,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그 어느때보다 심혈을 기울였다.

실제로 도의회는 2018년 총 8회 회기를 운영하는 동안 19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구체적으로 ▲충청남도 모범운전자 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 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9건의 조례가 활발한 논의 등을 거쳐 의결됐다.

### 2018년도 아쉬운 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당하고 공정한 행정집행을 살펴봄에, 도민들이 아주 작은 예산이라도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한 것을 살펴보는 것은 도의회의 당연한 의무이나, 4개 시군의 감사거부로 시행되지 못한 부분을 큰 아쉬움을 꼽았다.

유병국 의장은 “비록 시군 행정사무감사의 무산으로 도의 위임사무 집행의 적정성과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앞으로 우리 도의회는 ‘법과 원칙이 통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주권자인 도민을 섬기는 울곧은 마음이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충남도의회는 2019 주요업무계획으로 ▲효율적인 회기운영 및 전문성 강화 ▲도민이 만족하는 정책제안 및 열린 의회 운영 ▲실효성 있는 입법·예결활동 지원 강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활성화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및 시설 확충을 내놓았다.

우선, '효율적인 회기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도정 순기에 맞는 생산적 회기 운영 ▲체계적 의원 관리 및 기록 유지 ▲의원 직무연수 통한 전문성 강화를 실시한다.

이어, '도민이 만족하는 정책제안 및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제안 기능 강화 ▲도민의 의정참여 확대 ▲청소년 '의정아카데미' 운영 ▲현장중심의 민원해소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또한, '실효성 있는 입법·예결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 활동 지원 강화 ▲열린 의정자료실 운영 ▲실효성있는 예·결산 분석 지원을 통한 의회 재정 통제권 강화에도 힘을 신는다.

이밖에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해 ▲의정토론회 및 연구 모임 활성화 추진 ▲정책 연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유병국 의장은 “‘연구하는 의정상 정립’,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 ‘의회제도 개혁시동’, ‘정책인력 확충 및 사무처 조직 확대’ 등을 위한 과제를 선정해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원논단

## 로컬푸드 활성화 통한 ‘푸드플랜’ 수립해야



김기서 의원

‘웰빙밥상’, ‘건강밥상’ 열풍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운동’이 불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정책 도입 등을 통해 로컬푸드산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로컬푸드 운동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운동이다. 생산지에서 소비자까지의 거리를 최대한 줄여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함이다.

충청남도 로컬푸드는 대도시 몇몇 매장을 제외하고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의 소규모로 장기간 출하되는 지역 농산물의 수가 적다. 또한 특정 상품을 납품하는 농가 수의 제한이 없다 보니, 농가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이다. 이에,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 고령 농업인 및 소농업인들의 설움은 늘어나고, 농사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리지역 먹거리에 대한 생산 및 유통, 소비활동 등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묶어 관리할 수 있는 ‘푸드플랜’이 수립되어야 하며,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로컬푸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로컬푸드가 활성화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세워진 푸드플랜은 사상누각으로 성과없는 플랜으로 남을 우려가 크다.

현재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의 자체소비율은 10.1%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로컬푸드를 통해 지역 농식품의 유통을 극대화시킨다면 제대로 된 푸드플랜 수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현재 로컬푸드 사업 대부분은 지역농협 위주로 활성화 되어 있어 지역농협을 통한 농민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푸드플랜을 준비해 로컬푸드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지역농협은 오랜 기간 동안 판매사업을 통해 농민들과 돈독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십분 활용해 지역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식품 사업의 동반자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러한 신뢰와 건전한 경쟁이 바탕이 된 농식품은 안정적인 가격과 신선도를 유지해 소비자들에게 연중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산물 유통은 SNS 이용자 증가 및 택배 산업의 발전 등으로 온라인 판매가 급성장·다변화 되어가고 있으나, 대형마트 신선농산물 매출액은 주춤해지고 있다.

이에 농협은 매출 향상을 위해 신용·경제 사업을 분리하고, 판매 사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편했으며, 이러한 조직 재편으로 농산물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대형마트 농산물 공급의 주요한 주체로까지 성장세를 꺾고 있다.

푸드플랜은 전쟁과도 같은 거시적 유통의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공급 계획부터 수립해야 할 것이다. 푸드플랜이 공급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많은 장점이 있어 성공에 대한 믿음도 커져있다. 하지만 노력 없이는 이러한 믿음이 오지 않을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다양한 변수로 가격을 예측하기 어려운 농산물의 특성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푸드플랜은 로컬푸드 사업을 재점검해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고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사업 책임자는 생산 농가와와의 소통 및 자율성 부여로 자생력을 높이고 연중 공급을 위한 ‘작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장 위주의 점검으로 농가와와의 신뢰도 향상으로 상품의 다양화를 꺾어야 할 것이다.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눈다고 ‘푸드플랜’은 완성되지 않는다. 천천히 기초부터 다지며 준비해야 제대로 된 푸드플랜이 수립될 것이다.

의원논단

# 독립투사들의 실천하는 삶



김득응 의원

1919년 4월 아우내 장터에 올려 퍼졌던 3·1독립만세 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 의지와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음은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져 일제 탄압 속에서 자주독립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느덧 100주년이 된 독립만세운동이 나에게 더욱 뜻 깊이가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내 고향, 내 삶의 터전이 바로 아우내 장터가 있는 천안시 병천면이기 때문일 것이다.

100년 전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주도했던 인물 가운데 김구옹 열사가 있다. 김구옹 열사는 필자의 집안 어른신이어서 어렸을 적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김구옹 열사는 천안시 병천에서 교사생활을 하다 독립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주도한 인물로서, 만세운동 당일 독립 만세의 정당성과 맨손으로 독립 만세를 부르는 사람을 죽이는 일본 경찰을 꾸짖으며 저항하다 일본 경찰의 총검에 순국하셨다.

아우내장터에서 연령 및 신분을 초월하고 독립을 위해 쓰러져 가신 독립투사들에게 절로 고개가 숙여지며,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게 해주셨던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어려서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병천의 아우내 장터, 이곳을 따뜻한 햇볕의 봄기운을 맞으며 천천히 둘러보았다. 항상 다니던 길이었지만 이날은 독립 만세운동 기념 공원에 시선이 머물렀다. 100년 전 이 장터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외쳤던 함성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다. 마치 만세운동 현장에서 나도 한 명의 주인공이 된 듯한 벽참을 느끼며, 그때 독립투사들의 열정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장터를 떠나 다음으로 향한 곳은 유관순 열사 사적지이다. 많은 국민들이 독립기념관을 한 번 이상은 가보았을 것이지만, 독립기념관에서 멀지 않은 유관순 열사의 사적은 잘 모를 것이다.

사적지에는 유관순 열사 생가지와 초혼묘, 추모각, 봉화지를 비롯해 유관순 열사가 다녔던 매봉교회 등이 있어 유관순 열사에 대해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진정한 지식은 실천에 있다” 독립을 외치다 일제의 총칼에 쓰러져간 독립투사를 생각하면 필자는 이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일제 강점기 시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는 독립의 열망이 가득하겠지만 가족과 본인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독립투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 이러한 행동은 존경할 만한 일이며, 그분들이 보여준 삶을 희생하며 실천한 진정한 지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다.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각이나 말에 그쳐 버리는 것이 다반사일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판단과 선택에서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이러한 선택과 행동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하며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 100년 전 독립 만세 운동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수많은 행동하는 양심가들에 의해 변화되고 발전되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행동하는 양심 및 수많은 김구옹열사, 유관순 열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더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라도 꼭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바래본다.

의원논단

# 충남혁신도시 유치, 범도민적으로 전개하자 제 310회 임시회를 마치며



조승만 의원

새봄을 맞아 지난 3월, 12일간 열린 제 310회 임시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많이 전달한 아주 특별한 회기였다. 의원 사무실마다 지역의 각종 민원인들이 수시로 찾아와 애로 사항을 말씀하셨고 42명의 도의원 중 16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도지사에게 그 내용들을 전달했다.

충남도의회 제11대 의회는 유난히 도민들의 민원이 많았는데, 그만큼 지방자치시대가 활성화 되었다는 증거로, 도의원들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가 증가한 것이다. 필자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뜻있는 의원들과 대학교수, 지역주민들과 ‘내포신도시 활성화 및 시·군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모임’을 결성했다. 그리고 도지사에게 내포신도시와 관련된 3가지의 도정질문을 하였다.

첫째, 내포혁신도시 지정 문제다. 필자는 지난해 7월 11대 의회 개원식과 더불어 건의문을 대표 발의하여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에 발송하였고, 이후에도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310회 임시회에서는 ‘내포혁신도시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도지사에게 질문하였으며 범도민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충남 혁신도시 유치를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도지사 및 도청 공무원에게 앞장서서 우선적으로 서명운동 전개 및 참여를 촉구했다.

이에 양승조 도지사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도정의 1순위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내포첨단 산단의 조기조성과 관련해 2020년까지 계획된 내포첨단산단 기반조성을 올해 말까지 1년을 앞당겨 추진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도지사는 ‘내포첨단 산단지역에 대한 기반조성에 대한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고 우수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충남대학교 일부 캠퍼스를 내포로 이전하자는 문제에 대해 충청남도과 충남대가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는데, 충남대학교 일부캠퍼스 이전문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대학이 들어와야 젊은이들의 거리가 조성되고 이에 내포신도시가 활력이 생겨 향후 인구증가로 인해 대학병원 등 인프라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도지사 답변으로는 ‘충남대와 연말까지 부지 교환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충남대 일부캠퍼스를 내포신도시에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듣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국토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산업전략분야에 충청권 반영과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건의문을 대표 발의해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에 발송하였다. 이렇게 바쁜 회기를 보내다보니 문득, ‘파킨슨의 법칙’의 의정활동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분명한 것은 의원들에게 바라는 도민들의 요구사항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5분 발언과 도정질문 등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도민의 다양한 요구로 의회와 집행부의 할 일이 그만큼 많아지게 되겠지만, 도민들의 입장에서 도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 보다 의회와 충남도가 분발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충남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기업이 조기에 유치되고, 대학이 들어와, 충남의 수부(首府)도시로서 사람이 모여드는 살맛나는 곳이 될 것이다.



제310회 2차·3차 본회의

# 제310회 정례회 도정·교육행정 질문



이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령2)

## 서해선 복선전철의 대천역 연장 제안

• 도로 인프라 개선 위한 ‘국도21호 웅천-주산  
간 4차선 조기착공’ 제안

이영우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낙후된 보령지역 도로 인프라 개선 필요성 및 보령공군사격장 인근 학교 피해 문제 등 보령의 현안사항을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웅천-주산 간(10.9km) 도로는 차량

통행량 증가로 심한 병목현상이 유발되는 왕복 2차선 구간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확장 및 선형 개량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구간의 경우 2011년 시행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서 사업 타당성이 낮다고 분석되어, 1공구(주산-서천)와 3공구(남포-웅천 구간)의 공사만 진행되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 지역균형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역주민들 및 보령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 웅천산업단지 20만평 완공,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낙후된 도로에 대한 환경개선이 중요하다”며 “국도21호선 웅천-주산 간 노선의 4차선 확장 조기 착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 등 천혜의 해양 휴양 관광지가 많아 연간 1,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2022년 보령 해양 머드박람회’ 개최에 따른 관광객 유입 대비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서해선 복선전철(경기 화성 → 충남 홍성)의 대천역 연장을 촉구했다.



조철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3)

##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역’ 반드시 설치”해야

- 지역균형 발전 위해 예타 면제, 국가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필요

조철기 의원은 3월 19일 개최된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천안아산역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 자리에서 “지난 1월 국토교통부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평택~오송 간 복복선 건설 사업이 천안아산역 무정차가 계획되어 있어 충남도를 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천안아산역은 경부호남고속철도, 수서발 고속열차는 물론 향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합류·정차하는 중요 철도 관문이며 서울·경기 지역의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과밀화 해소와 전국 철도 구축망의 중요 거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복복선 건설 사업에 천안아산역을 지하화 설치하거나 천안아산역에 정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천안아산역 주변 인구가 2000년에는 59여 만명에서 오는 2040년에는 17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천안아산역 설치를 통해 예타 면제사업의 취지에 맞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로 충청남도가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긍정적 효과 및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KDI 등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역 설치를 기본계획에 편입시킬 수 있는 방안 등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영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2)

## ‘2030 아시안게임’ 개최 효과 극대화 위한 대응 촉구

- 충남이 세계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회 준비 요구

한영신 의원이 3월 19일에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청권 4개 시·도 아시안게임의 공동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아시안게임 유치는 2015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충남의 백제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이며, 이를 계기로 충남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여러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기대효과와 예정된 적자’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제대회 유치 사례를 통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제대회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아시안게임의 개최를 통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장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의 기반을 충남만의 특성화를 통해 확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이 세계도시로 발전하며, 560만 충청인들이 동참하는 시민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옥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5)

## 결의안·건의안 행정조치 만전 촉구

- SK하이닉스 유치 건의안 7건 및 결의안 13건  
추진상황 파악 힘들어

제11대 충남도의회가 채택한 결의안 및 건의안에 대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옥동 의원은 3월 19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도정·교육행정질문에서 “제11대 충남도의회가 채택한 결의안 및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행정적 조치를 파악할 수 없어 충남도의 현안사업 해결 의지가 정부 및 대외기관에 강력히 표출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제11대 충남도의회가 채택한 건의안 및 결의안은 각각 7건, 13건이다.

한 의원은 건의안 7건 및 결의안 13건 가운데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남지역 선정 건의안’,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안’, ‘수도권공장 총량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건의안’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한 의원은 “220만 민의를 대변해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한 충남도의 관리, 행정적 조치가 소홀하거나 소극적이어서는 안된다”며, “이제는 220만 도민의 바람과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는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만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성1)

## 내포신도시 발전 방안 촉구

-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등 향후 기업유치 전략 질의

조승만 의원은 3월 19일 제310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과 그 발전 방안’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내포를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추진전략, 내포첨단산업단지 조성 위한 향후 기업유치 전략, 충남대 내포캠퍼스 이전유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내포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의했다.

조 의원은 “내포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당시 2020년까지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로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약 2만 5천명에 불과하다”며 집행부의 더딘 행정력을 비판했다.

이에 양승조 도지사는 “당 지휘부는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의 지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행정부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안에 국회에서 ‘혁신도시법’이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포 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해 임승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는 “3월 현재 7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준공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입로 등 기반공사는 2022년 완공예정인데 이를 조기에 앞당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섭 의원(자유한국당, 태안2)

## “공주보 철거보다는 금강 하구둑 철거 우선” 제안

- 경제성 보다는 농업용수·식수부족 등의 문제 해결 위한 도의 대책 주문

정광섭 의원이 “기후변화와 우리 지역의 지형적 특성 등으로 환경부의 공주보 철거 정책 결정은 공주보 상류 지역만이 아닌 충청남도 전 지역에서의 농업용수 부족과 식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공주보 철거가 물의 흐름 및 강의 회복성을 복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면 현재 모든 강의 흐름을 막고 있는 댐, 보등을 철거함이 바람직하며, 이는 4대강 사업으로 추진한 공주보를 포함한 일부 보만을 철거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환경부의 공주보 해제 결정 과정에서 충청남도와의 사전협의 유무를 묻고 지역에 민감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충청남도와의 의견을 묻지 않는 일방적인 결정이었다고” 역설하면서 “공주보 철거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과 공주시, 부여군, 세종시 등과의 공동적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의원(자유한국당, 예산1)

## 내포에 혁신도시 및 종합병원 유치 필요 주장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충남 역차별 주장

방한일 의원은 ▲내포신도시 내 혁신도시와 종합병원 유치 문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방역 인센티브 부여방안 ▲인천국제공항버스 내포터미널 및 예산 경유 등 3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방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해소로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인해 오히려 충남이 각종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이 작년부터 18%로 의무화 됐고, 2022년까지 30%를 달성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충남은 혁신도시가 없어 혜택이 전무한 상태”임은 물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지역 내 청년구직자가 받는 불합리한 현실을 꼬집었다.

또한, “내포 지역 의료권 확보를 위해(종합병원을) 꼭 유치해야 한다”며, 양승조 도지사에게 내포신도시 내 ‘혁신도시+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대응 및 계획에 대한 답변 요구와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 방역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을 충남도에 제안했다.



김은나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8)

## 충남도내 집단 급식소 친환경 조리기구 교체 촉구 및 난임부부 시술·상담지원 확대 요구

- 친환경 조리기구 선택은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
-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도’ 위해 난임부부 시술 지원 확대 요구

김은나 의원은 3월 20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음식 못지않게 친환경 조리 기구의 선택은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충남도내 집단급식소의 유해성 알루미늄 재질 조리기구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3억 8,5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723개 학교 가운데 조리실이 설치된 598개 학교를 대상으로 유해성 알루미늄 재질 조리기구 교체에 나섰지만 충남도의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581개소의 유해성 조리기구 교체의 더딘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도’를 위해 난임 부부 시술지원 확대 및 심리·정서적 상담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난임 부부 증가가 저출산 문제에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충남도에서는 난임 부부들의 생각 및 요구가 반영된 지원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내 시·군 보건소를 활용한 난임 관련 주사제 투약 가능여부 지원방안 마련, 지방의료원 4곳 난임 센터 개설, 난임 시술지원 연령, 난임 시술 횟수 확대 등을 충남도 차원에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여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2)

## 도내 축제 통한 관광 활성화 촉구

- 관광객 적은 동절기 부합하는 축제 개발해야… 겨울철 관광객 유치 대책 및 실천방안 마련 강조

여운영 의원이 충남관광통계 문제, 겨울철 관광산업 활성화, 전문성과 지속성 있는 관광정책 등을 지적하며 도내 축제를 통한 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 의원은 이날 본회의 자리에서 “충청남도 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 수는 86개이며, 예산 낭비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축제는 정리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축제에 의한 관광객 유치 현황 통계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 의원은 “충남에서 실시되는 축제는 주로 4월, 5월, 9월, 10월에 집중되어 있다며,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적은 동절기에 알맞은 축제를 개발해야 한다”며, 겨울철 관광객 유치에 대한 대책과 실천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여 의원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며 전문적이며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실행이 필요하다”며, “충남의 관광정책을 통솔할 수 있는 조직이 설립되어 충남의 관광산업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긴급현안 질문



이공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4)

## 디지털 독립군 창설 촉구

- 제309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 예정
- 5G시대를 대비한 행정기관의 선제적 대응 주문

충남도의회가 5G시대를 맞아 충청남도과 충남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공휘 의원은 3월 21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디지털 독립군을 창설하라’는 내용으로 긴급현안 질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의 긴급현안질문 내용으로는 “현 시대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4G에서 5G시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시스피커 등을 통해 민간기업들의 데이터 수집과 정보독식은 생활 속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점에 충청남도과 충청남도교육청은 디지털 표준화 및 민간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는 2020년 시작되는 5G는 기존 LTE보다 최대 1,000배 빠른 5세대 이동통신”이며, “민간기업에서 5G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조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남도과 충청남도 교육청의 행정기관건물,

가로등, CCTV 등을 기지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형식으로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행정데이터, 사회관계 서비스 데이터를 디지털 표준화하는 작업을 거쳐 대형 정보통신기업과 제휴를 통해 동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제휴를 통해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이나 창업자들에게 배우처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해 아이디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이 충남에 정착해 일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현안질문’은 도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 및 중요한 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도지사 및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하는 것으로, 충남도정의 핵심 정책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편, ‘긴급현안질문’은 제11대 충남도의회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사례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 긴급현안 질문



오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1)

### 금강살리기 위한 T/F 구성 필요

- 전북과 상생협력 채널 필요,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시급
- 2021년 건립되는 충청유교문화원, 대한민국의 유교문화원이 되어야

충남도의회에서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한 T/F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은 3월 29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중앙정부에 의견개진과 도민소통을 위한 물관리 T/F팀 구성’이라는 내용으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오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에서 “국가의 물관리 체계는 일원화되었고, 비상시 수시로 지방정부의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중앙정부가 충남도민과 충남도의 의견수렴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다.

또한, 오 의원의 “상시 대응체계를 만들고 우리 도가 관리하는 지류하천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민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T/F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환경부 4대강 조사단 발표에 따라 지역 농민들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표출되고 있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채 가짜뉴스에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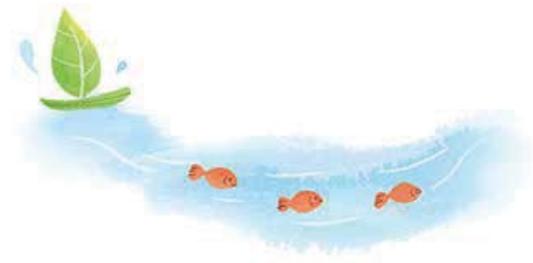
하여 선동하는 일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하며, “충청남도는 도민과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강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충남과 전북이 금강을 매개로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금강하굿둑 구조개선을 통한 해수유통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각종 어류들의 산란장 기능회복과 기벌포의 복원으로 충남과 전북이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긴급현안질문에서 오 의원은 2021년에 논산시 노성면에 건립예정인 ‘충청유교문화원’에 대해 질의했다.

오인환 의원은 “새로 건립되는 충청유교문화원은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삶의 가치를 정립시켜낼 수 있는 21세기 유교문화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충청 유교문화원은 충청이 아닌 대한민국의 유교문화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오인환 의원은 논산출신으로 청와대 사회조정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등 풍부한 행정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충남의 젓줄인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금강생활권 삶의 질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해 구성 된 ‘충남도의회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금강권역 보호와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309회 1차 본회의 2019. 1. 21.

##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 통합이전 반대 촉구

- 통합이전은 예산군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편향된 생각
-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 현행대로 예산읍에 존치해야



방한일 의원(자유한국당, 예산)

방한일 의원이 1월 2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해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 통합 이전 반대'를 제안했다. 방 의원은 "최근 공사에서는 조직의 슬림화와 경영 효율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본부가 내포신도시 내 흥성지역으로 이전과 동시에 예산지사를 흥성지사와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 의원은 "예산읍 원도심에 위치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를 없애고, 이를 내포 흥성지역으로의 이전 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의 취지와 군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행정 서비스를 추구하는 공기업이 군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편향된 생각"

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군의 경우 내포신도시의 개발에서 공공기관의 흥성 편중 현상과 예산 원도심 인구의 과다 유출로 그동안 많은 소외를 받아와, 군민들의 상실감과 원성은 하늘을 찌를 만큼 크다"고 말했다.

또한, 방 의원은 "충청남도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가 현행대로 예산읍에 존치해 국토 균형발전 및 내포신도시 활성화, 예산읍 원도심 살리기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말했다.

제309회 1차 본회의 2019. 1. 21.

## 사회간접자본투자 확대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구

- 충남도, 선도적 SOC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및 일자리창출 활성화 촉구



이계양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이계양 의원이 1월 2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사회간접자본투자 확대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구'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으며, SOC예산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경기가 활발했던 세종시는 도로와 교량 등 SOC투자가 줄면서 2017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9.3% 줄었으며, 충청남도 공장과 창고의 수주가 줄어 2017년도 동기대비 48.7%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경제 통계를 인용해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건설업이 제조업의 0.58보다 높은 0.73을 나타내고 있고, 고용 유발 계수도 제조업의 8.7명보다 1.5명이 많은 10.2명"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노동 소득분배율은 0.89로 제조업의 0.54보다 월등히 높으며 건설업이 고용과 소득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9년의 경우 2%초반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며 앞으로 이러한 저성장이 고착화될것이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SOC투자확대와 조기예산 집행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제309회 1차 본회의 2019. 1. 21.

## 취약계층들을 위한 실질적 경제 지원정책 시행 촉구

- 충남형 청년통장지원 및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양극화 초래
- 사회안전망 밖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정책이 우선되어야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양)

김명숙 의원은 1월 2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형 청년통장지원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수혜자별 불평등 문제를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형 청년통장지원 사업은 27만 1천여 명의 비정규직 청년과 1만 7천여 명의 실업청년은 지원대상에 빠져 있으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도 1인 사업장 내지 10인 이하의 비정규직 지원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해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편성된 사업비는 취업도 못하고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취업공부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 및 5인 미만 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며, “중소기업의 정규직 청년들에게 더 안정적인 직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은 일자리가 없는 실업청년과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충남도가 희망의 실타래가 되어주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를 더 벌려 놓거나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취약계층들이 사회안전망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부 지원을 받는 정책으로 바꿔 시행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제309회 1차 본회의 2019. 1. 21.

## 충청남도 미혼모 정책에 대한 제언

- 미혼모(부) 자녀들... 당당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방안 모색
- 미혼모(부) 고립...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로 여겨야



황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황영란 의원이 1월 2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미혼모 정책에 대한 제언’을 펼쳤다.

황 의원은 미혼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시설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제도를 통해 직업교육 & 훈련, 취업연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제공되는 한정된 직업군은 저임금 직종이며, 이는 결국에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한부모 법정소득 기준의 굴레에 부딪히고 만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이러한 고민 해결을 위해 “충남도의회는 한부모 가족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미혼모(부)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일부 추가해 수정 제정하였으며, 이로써 이전보다 미혼모(부)가 살아가기 좋은 충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성 또는 남성이 아이를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 직접 키울 것인지 입양 보낼 것인지,

직접 키운다면 어떻게 키울 것인지,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와 같은 막막한 삶의 질문에 명료하게 답변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를 위해 원스톱 상담센터 마련과 임신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청소년 또는 대학생 미혼모(부)에게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생계유지 수단이 사라진 경력단절 미혼모(부)들에게는 안전한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황 의원은 “무엇보다 미혼모·부의 고립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로 여겨 그들을 향한 편견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가족 및 도민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의 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309회 1차 본회의 2019. 1. 21.

## 보령댐 주변지역 도차원 지원사업 강화

- 보령호 둘레길, 출렁다리 등 관광 랜드마크 설치 필요성 제기
- 관광객과 연계상품 개발, 주민 생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령2)

이영우 의원이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주장에 따르면 “기존 5,000명이던 원주민이 보령댐 건설로 인해 현재는 62%가 감소한 약 1,900여명이 남아 있는 실정이며, 남아있는 주민들은 축사를 비롯해 공장 및 식당건축 등 많은 제약으로 생계유지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임에도 현재 보령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은 도차원에서는 전무한 실정이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령댐 주변지역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커져만 가고, 보령댐의 물도 도내 7개 시·군에 공급하고 있어 도차원에서도 지원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보령댐 주변에 둘레길 및 출렁다리 등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해수욕장을 찾는 1천만명의 관광객들을 보령호 주변으로 유인하는 관광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09회 1차 본회의 2019. 1. 21.

## 안면도 목장부지 이용 승마장 유치



정광섭 의원(자유한국당, 태안2)

정광섭 의원이 안면도 목장부지에 승마장 및 승마체험장을 유치하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현재 안면도에는 한국야쿠르트 폐 목장용지가 332ha, 두산그룹의 폐 목장용지가 1,782ha가 있으며, 한국야쿠르트 폐 목장용지는 임야 전환 후 충남도에 반환하고자 소나무를 오래전에 식재를 하였으나, 현재 소나무가 성장하지 않아 임야 목적으로 전환 시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 안면도 내에는 한국야쿠르트와 두산그룹에서 관리하고 있는 두개의 폐 목장 용지에 전국 최대의 승마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으며, 이 사업이 쉬운 사업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면이 바다인 천혜의 아름다움을 가진 안면도를 제주도 올레길처럼 안면도 내에 말이 다니는 승마 올레길을 몇 가지 코스로 만들어 본다면 이 보다 더 환상적일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정 의원은 “우리 충남도에서 안면도를 국제관광지로 개발한다고 한지가 올 해로 28년째 늘 제 자리이며, 충남개발공사에서 안면도 지포지구와 운여지구를 개발지로 묶어 놓은 지도 15년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자 공모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적격 사업자가 선정되어 승마장과 더불어 안면도관광지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309회 2차 본회의 2019. 1. 31.

## 지방의료원 통합 조직개편 해야

- 도내 의료원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및 거버넌스 역할 제시
- 순환근무제, 의료장비 및 업무시스템 자동화 추진해야



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7)

김연 위원장은 1월 3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남공공의료원의 조직개편'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충남공공의료원의 조직개편과 관련 “업무 분담의 적절성, 프로세스의 체계적 작동 여부 및 업무에 필요한 환경 구조 등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의료원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과 행정업무 매뉴얼 표준화 등을 제시하고 거버넌스 역할을 담당할 조직구성 필요성과 관리부장을 비롯해 4급 이상 관리자의 순환근무제 도입과 경영

성과 및 운영평가 등을 공유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장비의 현대화 및 업무시스템을 자동화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선 지방의료원 통합적으로 조직개편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09회 2차 본회의 2019. 1. 31.

## 태양광 폐패널 처리에 관한 문제 제기

- 태양광 폐패널 사용현황 및 사후처리에 관한 정책수립 마련
- 폐패널 회수 및 처리 가능한 시설 갖춰야



여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2)

여운영 의원이 1월 3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태양광 폐패널 처리’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여 의원은 “우리나라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아 사후처리를 비롯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태양광 보급 확산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막대한 폐패널의 처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보급되었고 수명이 20년임을 감안하면, 향후 5~6년 뒤에는 수명을 다한

폐패널이 급증할 것이다. 이에 폐기된 폐패널의 독성 물질로 인한 토양 오염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폐패널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회수에서부터 처리까지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처리시설이 아직 한군데도 없다.

충남도에서도 하루속히 태양광 패널의 사용현황과 사후처리에 관한 정책수립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폐패널 회수 및 처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춰야 할 것을 강조했다.

제309회 2차 본회의 2019. 1. 31.

## ‘김’ 산업 육성 위한 지원 절실

- 충남 ‘김’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위해 ‘김’ 산업 연구소 설치 절실

충남 ‘김’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김’ 연구소 설치 및 정수·폐수시설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월 3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금봉 의원은 황백화로 인한 김 산업의 피해를 언급하며, 안정적인 김 생산을 위해서는 고품질의 종자를 개발할 수 있는 김 연구소의 설치와 김 제조 공장의 가공용수 및 배출수를 정화시켜줄 시설물 지원을 건의하였다.

또한, 황백화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김 양식어장의 바닥에 영양염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바지락 등 패류의 양식과 김 가공업체의 저온 저장창고 설치 확대를 건의하였다.



양금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천2)

양 의원은 “충남 서천군은 전국 마른김 생산의 40% 이상, 원초 김은 충남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충남 김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종사자들은 황백화의 피해가 가중되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니, 도 차원에서 김 산업의 피해 방지와 육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양 의원은 “김 양식장에 바지락 등 패류의 양식 및 정수·폐수시설이 확대될 경우 환경개선의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309회 2차 본회의 2019. 1. 31.

## 산재·노동인권 실태 조사 위한 TF팀 구성 촉구

- 위험도 높은 산업분야 노동 현장의 의견수렴 및 TF구성에 전문가 참여 필요

이선영 의원은 지난 1월 31일 제30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내 산재 실태 조사와 노동인권 실태 조사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TF팀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8년 하반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외주화가 만연한 점을 언급하며, 충청남도가 그 동안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하는 등 도민의 죽음에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한, 이 의원은 “TF팀의 신설을 언급하며 그 팀의 역할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인권문제인지를 인식하고 관련 데이터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영 의원(정의당, 비례)

이밖에도, 이 의원은 “충남도내 일하는 시민, 노동자, 도민이 겪는 산업재해는 건강을 잃거나 장애가 남거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은 경우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산재제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 계획을 수립·조사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갖고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영 의원은 “지방정부의 역할은 도민의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넘어 ‘노동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도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충청남도가 적극 개입해 진행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제309회 2차 본회의 2019. 1. 31.

## 공동생활가정 근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 주장

- 공동생활가정 근무자 과도한 업무량... 적은 임금 체계 지적



안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4)

안장현 의원이 1월 3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공동생활가정 근무자의 업무 환경과 처우가 좋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공동생활가정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경우 12시간 근무가 보통이며 주 52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고, 임금을 살펴 보면 충청남도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생활가정 근무자들은 1~2년이 되면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아동 7명과 종사자 3명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동들을 돌보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심리 정서적 측면, 보호로서의 측면, 자립으로서의 측면에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도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살피고 도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복지 수혜자의 권리 향상과 함께 종사자 처우를 'Bottom up' 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하며, 다가오는 설명절에 공동생활가정에 생활하고 있는 미래 주역과 종사자들에게 사랑의 마음과 손길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309회 2차 본회의 2019. 1. 31.

## 도내 낙후지역 교육환경 개선 대책 및 학교시설 개방 시 전면무료화 해야

- 도 교육청 2017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학교시설 사용허가 2421건 · 14억 3000만원 사용료 징수... 사용료 무료화해야



전익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천)

전익현 의원이 1월 3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내 낙후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2008년부터 도내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2조에 근거해 충청남도 지역 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동법 제34조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 계정 중 10% 이내와 도 보통세 징수액 5% 이내에서 재원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도 교육청도 이러한 선진사례 및 정책을 벤치마킹해 충남교육의 중장기적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예산지원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도 교육청이 개방하는 학교시설 대부분이 각 지자체에서 대응투자한 것으로 이러한 시설들은 주민들의 세금이 투입된 것이라며 교육공동체 실현 및 복지사회 구현에 동참하고 사용료 징수에 따른 주민과 교육기관 간 갈등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10회 1차 본회의 2019. 3. 18.

##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대책 촉구

• 골든타임 준수를 높이기 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대책마련 촉구



홍기후 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

홍기후 의원은 3월 18일 제310회 임시회에서 “골든타임 준수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비율을 전원비율이라고 하는데, 전원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시·군 중 절반이 충남에 분포되어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전원비율이 전국 평균 4.6%인데 비해 충남도의 전원비율은 14%로써 3배나 차이가 난다”며 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한 환자들의 목숨이 충청남도예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이 위태롭다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119구급차는 반드시 의사가 동승해야 2차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는, 의사가 부족한 충남의 경우 119를 통한 병원 간 환자 이송이 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민간구급차에 의해 이송이 이뤄지지만 15개 시·군에 총 45대 운영중인 것을 고려해 볼때 충남도는 이마저도 열악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는 응급의료체계에 있어 프랑스 SAMU(싸무) 시스템처럼 상급 응급의료 지도의사를 확보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미흡해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응급실 내원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지 않도록 여러 방면에서의 제도적, 행정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세심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제310회 1차 본회의 2019. 3. 18.

## “정부, 공주보 파괴 중단하라”

“공주보 첫 번째 대상으로 한건 정략적... 모욕감 느껴”  
“물 활용은 미래세대 위한 훌륭한 투자” 주장



방한일 의원(자유한국당, 예산)

방한일 의원이 3월 18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공주보 등의 해체 및 개방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방한일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실시된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 건설 후 가뭄·홍수 조절 및 농업용수 공급 등 순기능이 많았다”고 언급하며 정부가 결정한 공주보 파괴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방한일 의원은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가뭄 해소 및 홍수 저감 등 순기능은 철저히 외면하고, 실체도 부족한 환경 파괴 등 역기능만 침소봉대해 멀쩡한 공주보를 파괴하려고 있다”며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편향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방한일 의원은, “충남의 농업기반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공주보 파괴’를 중단하고, 해체 이전에 농업용수와 식수에 대한 선 대비가 있어야 한다”며, 당초대로 공주보 해체가

현실화 될 경우 물 부족 가능성을 매우 우려했다.

이밖에도, “물을 활용하는 정책은 시대적 요구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훌륭한 투자”라며, “물을 가두어 활용하기 위한 저수지 증설과 수중보 활용은 앞으로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할 정책”이라며 보 해체의 부당함과 동시에 보 유지의 당위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방한일 의원은 의사결정에서 도민과 현장 농민의 배제를 지적하며 “공주보 등 금강수계 보를 첫 번째 해체 대상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아주 정치적이고 정략적이며 충청인들은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고, 집행부 및 중앙정부에 공주보가 철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제310회 1차 본회의 2019. 3. 18.

## 충남 사회적 농업 육성 필요성 주장 펼쳐

• 고령화 문제 해결 위해 사회적 농업을 충청남도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충남을 대한민국 사회적 농업 메카로 육성



김기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여)

김기서 의원이 3월 18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에서 ‘충남 사회적 농업의 필요성’에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농업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을 활용해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사회 속으로 끌어안는 새로운 개념의 농업의 사회적 실천”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농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되고, 새로운 사회적 농장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및 농촌의 어메니티(Amenity) 자원을 활용하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조직과 연대하는 전략을 충청남도에서는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사회적 농업을 통해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한 충청남도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며, “민선 7기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충남도에서는 ‘사회적 농업’을 농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충남’을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 메카로 육성할 것을 건의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계 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이 강해져야 하며, 농업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농업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10회 1차 본회의 2019. 3. 18.

## 홍성 죽도 생활 기반시설 조기착공 및 남당항과 궁리항 경제활동 인프라 구축 촉구

• 천수만 살리고 어민들의 작업여건 개선 및 소득 증대 시킬 경제활동 인프라 구축 촉구



조승만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성)

조승만 의원이 3월 18일 제310회 임시회에서 천수만을 살리고 홍성 죽도 생활기반 조기착공 및 남당항과 궁리항의 어업과 경제활동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이에 따른 3가지 문제점 및 개선책을 제시했다.

첫째, 천수만의 새조개 생산량 저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충청남도 차원에서 천수만 서식환경 조사 및 고수온 피해에 대한 연구, 종자생산 기술 등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홍성 죽도 주민들을 위한 생활 기반시설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면서 죽도는 ‘다시 찾고 싶은 죽도 가꾸기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방파제 및 등대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죽도는 작년 5월 도선 출항을 시작하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식당 및 화장실 오폐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수처리장 등 기반 시설 확충이 2021년 이후에 계획되어 있어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당항과 궁리항의 어업 및 경제활동 인프라 구축 촉구하고 관련해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밖에도, 조승만 의원은 “어민의 원활한 수산물 양식 및 어선 승하선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도모를 위해 물양장 설치와 물고기의 산란 및 성장을 위한 인공어초를 설치해 어민들의 작업 여건이 개선되고 소득 또한 증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러한 모든 일은 어민과 기초 지자체의 역량만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제310회 1차 본회의 2019. 3. 18.

## 재가 중증장애인 복지향상 대책 마련 시급

• 탈시설화 · 중증장애인 지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정립 필요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산2)

김영수 의원이 3월 18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재가 중증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가 중증장애인들은 사회속에서 편견과 차별, 무관심속에 외면당한 채 다양한 영역에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고립되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재가 중증장애인은 시설장애인처럼 정기적으로 정부 기관이나 인권단체로부터 시설점검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해 차별에 그대로 노출되어도 고통을 토로할 곳이 없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재가 중증장애인들은 재정적·제도적으로 체계 잡힌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 되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다시 시설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명확하게 자립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에 기반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제공받는 행정·재정적 지원과 인프라를 재가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제도로 방향을 설정해 지원한다면 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나아갈 것이며, 모두가 행복한 충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참된 인권이 살아 있는 충남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310회 1차 본회의 2019. 3. 18.

## 양성평등 위한 조직문화와 소통정책 확산 촉구

일·가정 양립 생애주기별 소통으로 건강한 일터 조성



양금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천2)

양금봉 의원이 3월 18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에서 ‘양성평등 조직문화와 소통정책 확산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험난한 경쟁을 뚫고 공직 사회로 들어오는 여성공무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제외한 충남도청, 교육청, 15개 시·군의 공무원 현황자료를 받아 여성공무원의 비중을 연령별로 살펴보니, 젊은 연령층으로 갈수록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의 비중을 넘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러한 현상은 변화되고 있는 공무원 조직사회의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양성평등 및 사회적응과 일·가정 양립 등에 대한 생애주기별 소통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변화된 직장문화가 충청남도 내 산하 행정 및 교육 행정 공무원에게, 더 나아가 충청남도 내 전 직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긍정적인 양성평등의 조직문화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며, “생애주기별 소통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청 및 교육청 산하 여성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현재 충청남도 내 공무원 육아휴직자 1,799명 중 남성이 176명, 여성이 1,623명이며, 저출산의 실질적인 정책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확보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제310회 1차 본회의 2019. 3. 18.

## 영업용 차량의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사업 촉구

• 영업용 차량의 영유아 카시트 장착 시범사업 추진 제안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계룡)

김대영 의원이 3월 18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에서 ‘영업용 차량의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영유아 카시트 장착 차량을 운행 중인데, 충청남도는 재정적 여건의 미비로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협약을 통해 회원 차량에 한정해 영유아 카시트 장착 시범 사업을 추진 후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영업용 차량의 영유아 카시트 장착 시범 사업’의 장점으로 ▲충청남도모범운전자연합회를 통해 유아용 카시트에

대한 교통안전 홍보 및 안전교육 시행 ▲충청남도모범운전자연합회를 통한 시범 사업을 통해 영업용 차량에 대한 카시트 사업의 합리적 사업 규모를 추정 ▲영업용 차량운전자와 동승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아무썩록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영업용 차량의 카시트 장착에 대한 정책은 충청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영업용 차량의 영유아 카시트 장착 시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제310회 1차 본회의 2019. 3. 18.

## 대산 임해산업지역 교통 문제에 대한 도차원의 적극적 해소 대책 마련 요구

• 대산공단 내 화물운송전용 주차장 마련으로 공단 내 무질서한 교통 환경 개선



장승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산)

장승재 의원이 3월 18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에서 ‘대산 임해 산업지역 교통 불편 민원 해소 대책’과 관련된 문제점 및 해소 방안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유화업체 대형 4개사가 밀집한 대산공단은 산업 특성상 정기적인 보수점검이 필요하며, 올해 4개사 모두 보수 및 점검 실시로 출·퇴근 직원과 화물운송차량, 보수점검업무 직원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교통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화업체 대형 4개사 : 한화토탈(주), 현대오일뱅크(주), (주) LG화학, 롯데케미칼(주)

이어, “입주 산업의 특성상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더불어 주차

문제로 이중고를 받고 있다”며 “대산공단 내 유화산업의 발전 전망 및 특성 고려 시 단기적인 교통완화 대책으로는 만연한 공단 내 교통 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과 서산시, 대산공단, 유화업체 대형 4개사가 공동으로 협력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충청남도의 주도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토대로 장기적 관점의 교통완화대책의 일환으로 화물운송운전자의 편의 시설이 포함된 영구 노외주차장 계획이 추진되어 대산공단 주변의 교통 혼잡 완화 및 지역주민과 화물운송운전자, 공단 내 근로자들의 사고의 위험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310회 4차 본회의 2019. 3. 29.

##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충남도가 앞장서야

• 도내 청소년지도사 임금 수준 매우 열악, 임금을 대한 통합적인 기준 마련 필요



김동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공주1)

김동일 의원은 3월 29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도내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충청남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의 스승이자 벗으로서 동아리 활동, 학교 밖 체험활동 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의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지도사의 급여는 유사직군인 사회복지분야와 비교 시, 평균 기본급이 크게 차이가 난다”며, “유사직종 종사자들과 보수를 균등하게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도내 청소년 지도사의 급여는 통일적인 기준이나 규칙 없이 시군별 재정자립도 등의 여건에 따라 각 시설별로

제각각 지급되고 있다”며, “충청남도내에서도 청소년지도사의 임금을 대한 통합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나서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충남의 36만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는 유능한 청소년지도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충남의 미래인 청소년에게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청소년지도사의 처우 개선이 선결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제6차 청소년기본정책을 통해 청소년지도사의 임금수준 향상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지난 해 12월 국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충청남도가 이를 잘 준수해 청소년지도사의 처우 개선에 노력해 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제310회 4차 본회의 2019. 3. 29.

##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이동권 확보 방안 촉구

면허반납자 교통불편 최소화 위한 교통편의 지원책 발굴 요구



한영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2)

한영신 의원이 3월 29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2017년 기준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및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최근 10년간 163%나 급증하고 있다”며, “충남의 경우 고령운전자 사고발생 사망자수는 전국 평균의 두배 가까운 수치로 전국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전 면허 자진반납제도를 도입해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약자에 준하는 지원책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불편을 감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 발굴을 요구했다.

또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조건부로 운전을 제한해 안전을 도모하고, 일반 운전자의 교육을 강화해 실버마크를 부착한 차량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급증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제310회 4차 본회의 2019. 3. 29.

## ‘건강한 다문화 사회 조성’에 앞장서

•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 대책’ 촉구



김옥수 의원(자유한국당, 비례)

김옥수 의원은 3월 29일 제3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결혼이민자의 경우 초기 정착부터 일자리 문제, 최대 현안인 자녀문제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편견과 차별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옥수 의원은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현황을 제시하며 “결혼이민자들이 배우자와 불화를 겪고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이혼 하는 등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123건 → 2016년 976건으로 2년 사이 약 8배 증가 (경찰청,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현황」)

이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폭력 피해와 학업중단 문제를 언급하며, “중학생의 경우 다문화가정 자녀가 비(非)다문화가정 자녀보다 약 3배 높은 학업 중단율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특별히 심각해지는 가정 내 폭력과 일자리 문제, 자녀교육 지원 방안 등에 대해 꼼꼼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당부” 했다.

제310회 4차 본회의 2019. 3. 29.

## 충남의 ‘근로’ 표현을 ‘노동’으로 변경 주장

• 당당하고 아름다운 노동의 의미 되살리는데  
기여할 조례 제정 필요 언급



이선영 의원(정의당, 비례)

이선영 의원이 지난 3월 29일 제310회 임시회에서 일제 잔재인 ‘근로보급대’와 ‘조선근로정신대’에서 비롯된 ‘근로’를 칭산하고 당당하고 아름다운 ‘노동’의 의미를 되살리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노동은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행위인 반면에 근로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일을 한다는 수동적인 의미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현대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날로 중요해 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 잔재인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근로’가 ‘노동’으로 바뀔 때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미래의 주역인 우리의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 시 안전이 보장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으며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매년 6만 여명이 넘는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그중 700명(9~24세)이 불행하게도 목숨을 잃는 시대상황을 강조하면서 조그마한 것부터 바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함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충남이 노동자가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더 나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듣고, 어려움을 헤아리는데 노력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제310회 4차 본회의 2019. 3. 29.

## 남북교류 사업 활성화 촉구

• 남북교역로 확보로 충청남도의 역량 집중



이계양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이계양 의원이 3월 29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에서 “한반도 평화시대 도래에 충남도의 역할 강화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철저한 준비와 활성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말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가 진일보함에 따라 정부와 민간분야는 물론, 지자체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충남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단 한 차례도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북한과의 교류를 너무 수동적으로 대처했다”며 “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역할 증대 및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단기·중장기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우선, 단기적 제안으로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사업에 초점을 맞춰 충남도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통해 성사 가능성을 높여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교역로 확보를 위해 충남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우리 충남도가 환황해권 중심지로서 중국과 북한, 동남아시아 무역의 전초기지로서 충남도의 당진항, 대산항을 통해 황해남도 해주항, 평안남도의 남포항과 통항할 수 있도록 도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최근 여론 조사에서 국민 33%가 남북경협 중점 분야로 철도, 도로 연결을 1위로 꼽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육로 개척에 나서 바닷길과 함께 충남이 남북교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10회 4차 본회의 2019. 3. 29.

##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위한 지방세법 개정 시급

• 환경분야 자주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 활용을 위한 계획 필요  
• 당면한 환경문제 개선과 함께 미래세대 위한 환경정책 투자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양)

김명숙 의원은 3월 29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에서 대기오염 물질의 효율적 관리와 감축 및 대기환경개선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경기도에 이어 2위 수준(279톤, 2015년 기준)으로,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올해 2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며, 충남도도 올해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382억원을 편성하는 등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노력 중이다.

하지만, 지난 3월 6일 한국중부발전사(보령시) 현장방문을 통해 전달 받은 1조 5600억원 규모의 발전사 자체 대기오염물질 감축계획을 살펴보면, 환경성능개선은 30%밖에 안돼 시설성능

개선에 70%를 투자해 화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게 주목적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3월초 문재인 대통령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검토 지시와 조기폐쇄 예정시기를 당기겠다는 산업부의 입장에 발맞춰, 충남도도 기한 연장 저지를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현재 키로와 트시(Kwh)당 0.3원으로 최소한 원자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은 수준인 1원 이상으로 인상되도록 지방세법 개정안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310회 4차 본회의 2019. 3. 29.

## 장애학생 체육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 교육청 소속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요청

정병기 의원은 3월 29일 제310회 임시회에서 ‘장애학생 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체육회 소속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는 2018년 60명에서 2019년 90명으로 증가했으나, 교육청 소속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도자들의 주요 활동 장소는 학교가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내 732개 학교 가운데 25%인 180개 학교에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충남 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의 체육활동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3)

실제 장애인체육회 소속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신규 재가 장애인이나 기존 장애인에 대한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학교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의 역할까지 병행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욕구를 충족하기에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정 의원은 “교육청 소속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를 통해 장애학생의 체육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군에 배치된 지도자들은 신규 재가 장애인에 대한 체육서비스 제공에 집중해야 한다”며, 교육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310회 4차 본회의 2019. 3. 29.

## 국립국악원 중부분원을 공주로!

• 백제문화권 중심, 유네스코 도시, 충청·세종·대전 아우르는  
최적지임을 강조

최훈 의원이 3월 29일 제310회 임시회에서 ‘국립국악원 중부분원의 공주 유치’를 촉구했다.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최훈 의원은 “공주시에 국립국악원 중부분원을 유치 시 도민들에게 전통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인근 지역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 오는 관광객 증가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국립국악원 지역거점이 영남권과 호남권에 밀집되어 있어 중부권이 배제되어 있다”며 공주에 중부분원을 유치해 균형



최 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공주2)

있는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해야함을 피력했다.

이어 공주시에 유치해야 할 당위성으로 ▲백제문화권 중심 이자 예술·문화 집산지 ▲유네스코 도시 ▲위원회 발족 및 캠페인 실시 ▲충청·세종·대전을 아우르는 지리적 이점 등을 제시했다.

# 현 장 의 정



## 행정자치위원회

3. 12.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대상지' 방문

- 현장중심 의정활동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만전 기할 터



## 문화복지위원회

1.17.

전국 최초 문화산업단지로 지정된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방문

- 4월 개소 앞둔 충남콘텐츠기업 육성센터, 효율적인 관리·운영 사례 조사
- 천안시 중부물류센터 수년째 표류 중... 콘텐츠 산업 통한 방향성 제시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3. 12.

### 현대제철 방문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살펴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대기오염물질 배출 주요 사업장인 현대제철 현장 방문



##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3. 8.

### 산불진화 소방대원 격려

- 충남 아산 설화산 및 강원도 고성 산불화재 진압대원 노고 치하… 격려품 전달



## 교육위원회

2. 14.

### ‘자료요구권’ 정당한 권한

- 전교조 충남지부 자료제출 철회 요구 기자회견 통해 반박
- 공무원 성명·직위 자료제출 요구 “개인정보 위반, 권한남용 아냐”

행정자치위원회

## 청소년진흥원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 내포에 이전예정인 충남 청소년진흥원의 접근성 문제 지적
-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문제, 향후 지속적인 매수요청에 대한 대책필요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22일 도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했다.

‘2019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며 이영우 의원은 “보령시 성주면에 조성되는 국립 기억의 숲 관련 도유재산 교환건은 재산 관리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이고, 교환받는 토지도 향후 가치가 높은 토지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영신 의원은 “청소년진흥원 신축부지 선정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청소년들의 접근성”이라며, “예산군과 홍성군 양 측 모두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 확대 등이 필요하고, 설립 후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좋은 취지로 건립되어도 이용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길연 의원은 “도립공원 부지 중 사유지 매입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토지들만 그때그때 매입하는 것보다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선영 의원은 “청소년진흥원의 당초 계획이 지난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이번에 새로운 토지를 선정했는데, 이번에 예산군에서 청소년진흥원을 유치하는 만큼 접근성 문제해결과 인프라 구축문제 등에서 더 많은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재표 의원은 “도립공원에 편입된 토지 중 개인사유지가 있는 경우, 이러한 토지는 모두 매입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토지 일부에 시설물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도 문제이며,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조치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안장현 의원은 “도립공원 내 토지매입은 장기적으로 볼 때 향후의 재산가치 상승과 지속적인 매수요청 및 관리 직원들의 민원문제를 생각하면 매입이 바람직하나 도정의 전반적인 행정과 연계 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공휘 의원은 “청소년진흥원의 경우 18억이라는 토지 매입비를 심의하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된 접근성 문제를 사전 협의 후 안건 상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복지위원회

## 업무보고 청취

- 내포 문화시설지구 내 복합문화시설(박물관·미술관) 건립 촉구
-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 방안 제시… 원산도, 대신항 등 관광 호재 활용 주문



문화복지위원회는 1월 24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 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충남 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의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문화·체육·관광 등의 분야에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문복위 위원들은 특히, 안면도 관광지 개발, 충남 스포츠센터 건립, 대신항 국제여객선 취항,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등 도정 현안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연 위원장은 내포 문화시설지구 내 조성 예정인 도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해 “단순 미술관 보다는 활용도가 높고 더욱더 많은 도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라키비움 형태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충남 역사박물관 이전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도립미술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안했다.

여운영 의원은 “현재 충남에는 원산도 해저터널 및 대신항 여객선 취항 등 관광객을 끌어들이 만한 요인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 의원은 “이러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 업무보고 외에도 황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예술 교육 지원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가결로 통과 시켰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 미세먼지 대책 사업 부실 지적

- 인당 미세먼지 마스크 3개 보급… 임시방편적인 주먹구구 행정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정에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 실시 건의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3월 25일 도 기후환경국을 대상으로 열린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올라온 신규 사업의 부실성을 지적하였다.

김명숙 의원은 “이번 추경에 미세먼지 대책방안으로 총사업비 12억 6,900만원(도비 3억 8,0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도내 영유아 및 노약자에게 900원짜리 마스크를 3매씩 나눠주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을 위한 지원대상 선정 등은 의견 수렴을 통한 것이 아닌 주먹구구식 임시방편 사업이며, 선심성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이 원하는 미세먼지 대책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후환경국에서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양금봉 의원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에 가정용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화합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며, “도내 가정에 친환경 보일러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해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김득응 위원장은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으로 도비 2억원을 증액했는데, 폐비닐이 농촌에 방치된 상태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며, “폐비닐 이외에도 농촌에는 많은 폐기물이 방치되어 도시보다 오염이 심각한 지역이 많으니, 폐비닐 등 폐기물 수거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 건설교통국 및 종합건설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청취

- 건설교통국, 현안사업 추진으로 충남의 지속적인 발전 동력 확보 주문
- 종합건설사업소, 추진 사업의 적기 시행 및 마무리로 도민 편의 도모 주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월 23일 건설교통국 및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충남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장승재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에는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서해선과 장항선 복선전철, 서산민항 유치 등 굵직한 현안사업 및 추진 중인 사업이 많은 만큼 신설된 도로철도 항공과에 기대가 크다"며 "충남의 경쟁력 확보 및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전익현 의원은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역별 특성 및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의원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28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라며 그동안 사업 전면 재수정을 촉구하면서 적격 사업자가 선정되기를 바래왔다"고 말했다.

김대영 의원은 "외국의 경우 특색 있는 간판과 건축물의

조화가 역사를 만나 명소가 된 사례가 있다"며 "우리도 공공디자인의 전문성이 독창성과 만나 관광과 경제적인 성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 및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도 의원은 "국방대 진입도로 등 20건의 손실보상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며, "사업 추진의 필수조건인 만큼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절차에 맞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승만 의원은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 등은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지방분권,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정근 의원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거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며, "서민과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 ‘환경교육·청소년 단체 활동 지원’ 팔 건어

·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4건 등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 관련 일괄개정조례안 심의



교육위원회는 3월 22일 제31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등 총 6건의 조례를 제·개정하며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 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이다.

홍기후 의원은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옥동 의원은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충남도내 학생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지도성·사회성·창의력 계발 및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교육청이 지원하도록 했다.

조철기 의원은 충남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충남도 2019년도 1회추경 예산 '63억원' 삭감

• 경제 활성화 및 도민 건강 사업에 힘써줘



예산결산특위는 3월 28일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심의 결과 37건 63억원을 삭감하고 총 6조 7,344억원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 심사는 경제 활성화 및 도민 건강 증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당초 충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43건 102억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위에 부의 상정되었으며, 예산결산특위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건강을 우선시 하는 기초아래 예산심의에 임했다.

또한, 단순 예산 절감보다는 다양한 각도에서 경제·보건 관련 정책에 대한 조연과 정책 의제를 주문했다.

이밖에도 예산결산특위는 추가경정예산심사임에도 밤 9시까지 이어지는 난상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며, 국비 문제·도정 현안·사업 필요성을 세밀히 검토해 최종 삭감 예산을 결정했다.

주요 삭감 사업은 독립공원사유지 매입, 농촌체험 마을 지원, 창업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 등이다.

이날 심사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단순한 예산 심사 차원을 넘어 집행부에 다양한 정책 및 행정 운영과 관련된 조연을 아끼지 않았으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 심사했고 도 집행부의 도민 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이다.

정광섭 위원장은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든다는 도민들의 고통스런 한탄을 들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추경 예산 심사를 했으며, 대외 여건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지역 경제마저 활기를 잃어가는 상황이라 예산결산특위 위원들도 어느 때보다 집중력 있게 심사를 했고 열정을 다하여 임한 우리 예산결산특위의 추경 심사가 충남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한편, 예산결산특위는 오는 5월 교육청 추경예산과 6월 2018년도 결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

# 내포문화권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진주혁신도시’ 방문

· 내포신도시 활성화 정책지원 방안 마련 위한 행보 나서



내포문화권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3월 26일 경남 진주혁신도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내포문화권(내포신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도시 기반시설 구축 현황을 점검했다.

‘내포특위’는 진주시청 및 LH본사(진주)를 차례로 방문해 혁신도시 지정 및 종합개발 추진과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청취하였다.

내포특위 관계자는 “진주혁신도시 방문 및 진주시청과의 간담회를 통해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과 예산지원으로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경남진주혁신도시 방문으로 도의회에서는 향후 내포신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언급했다.

김기영 내포특위 위원장은 “경남의 경우에는 혁신 도시를 성장거점으로 공공기관과 지역 주체가 연계해 지역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방문한 경남 진주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내포신도시 개발뿐 아니라 예산·홍성 구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포특위’는 “내포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촉구활동을 펼쳐 종합병원·대학 등을 유치해 인구유입은 물론 내포가 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겠다”고 밝혔다.

금강권역친환경적발전 특별위원회

# 금강권역의 항구적 발전 기반 다져

· 금강권역 발전방안 연구 · 2019년 업무 방향 논의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금강특위)는 1월 21일 도의회 특위회의실에서 집행부로부터 ‘2019년 금강권역 업무추진 방향과 연계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오인환 위원장은 “충남의 젓줄인 금강이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며 더 맑아져야 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수질 향상은 물론 충남 5개권역의 이해관계를 조정 및 종합적인 시각에서 최적 대안을 찾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금봉 의원은 “서천지역 김양식장의 황백화 현상 및 갯벌화로 장항항 이용 곤란 등 금강 오염에 따른 피해를 막아내기 위해 인근 지역과의 협의 및 타협안 도출을 위해 의회차원에서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일 의원은 “금강권역 연계협력 사업이 다른 사업과 중복을 피해야 하고, 낙후된 금강 인근 시·군 발전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김명숙 의원은 “‘강은 삶이다’ 금강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을 제외하고 관광·경제쪽으로만 금강을 바라보는 시각을 지양하고, 주민의 삶을 아우르는 금강이 되어야 하며, 실개천 복원 및 지천 수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기서 의원은 “금강호 수질개선에 이해 상충 시 대체 용수를 개발·공급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현재 방치되어있는 수변시설의 이용은 법률적 검토 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길연 의원은 “‘30년간 진척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충남·전북의 금강호 수질개선 문제는 한쪽 의견만을 피력하기보다 상대방의 요구 사항에 대한 대안을 세위 이해시키고,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태계가 복원하려면 망가지는 시간보다 많은 세월이 걸린다”며 충청남도 전체의 각성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지원 특별위원회

## 엑스포 행사장 점검 등 현장 방문 실시

• 진행상황 업무보고 청취 및 계룡대 비상활주로 등 점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2월 27일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예정지인 계룡시를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 방문은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서, 업무보고와 엑스포 조성 예정지인 계룡대 비상활주로 등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방문단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사업개요 및 세부실행계획 연구용역 추진상황, 엑스포 홍보 및 관람객 유치 계획 등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특별위원회’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청취했다.

또한, 방문단은 행사장 조성 예정인 계룡대 비상활주로를 방문해 전시관을 비롯해 야외공연장 설치 계획, 주차장 부지 등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김대영 위원장은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대한민국의 군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세계인과 함께 화합하는 자리인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본 특별위원회가 예산 확대 지원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2020년 9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17일 간 계룡대 비상활주로 및 계룡시 일원에서 ‘평화의 하모니’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육군사관학교이전지원 특별위원회

## 육군사관학교이전특위위원장에 김형도 의원 선임

• 부위원장에 지정근 의원... 육군사관학교 이전·유치 활동 지원 본격화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형도 의원이 선임됐다.

충남도의회는 1월 31일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형도 의원을, 부위원장에 지정근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육군사관학교이전특위는 참여정부시절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및 국방경쟁력 강화 등 국방클러스터 조성 및 도민의 열망에 따라 발족됐다.

김형도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 차원뿐만이 아니라 우리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시너지효과 창출 등 명실

상부한 국방도시 충남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육군사관학교 이전·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육군사관학교이전특위는 향후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을 위한 타당성및 당위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공주의료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 공주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 공주의료원장 자질 · 경영능력에 대한 심증 인사청문 거쳐



1월 29일 공주의료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실시 결과 ‘공주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으로 의결했다.

공주의료원은 장례식장 부정사건에 내부 직원이 연루되어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으며,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 및 경상수지 적자로 재정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조직 운영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

이날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조직관리와 인력 운영 및 경영개선을 중심으로 인사청문이 이뤄졌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공주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및 경영능력 평가로 나뉜 실시된 청문에서 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적 평가까지 세밀하게 검증해 인사청문이 한층 세밀화 되고, 종합적인 검증이었다는 평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내부 협의를 거친 최종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는 ‘부적합’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부적합 사유로는 각종 조직 운영 현안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이 미흡하고 인사청문위원들의 각종 의문 등에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김연 위원장은 “공주의료원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조직·경영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으며, 인근 지역에 소재한 대형 병원과 경쟁한다는 측면에서 의료원은 지역민의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함과 동시에 경영적인 합리성을 추구해야 하는 등 공공성과 경제성의 대책점이 서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한층 섬세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정밀하게 검증했으며, 위원들의 장시간 청문에 의한 결과이니 부적합에 대해 양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교통연수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 충남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 충남교통연수원 경영능력 및 공인으로서 자질에 대한 세밀한 검증



교통연수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1월 30일 회의실에서 교통연수원장 후보자인 양창모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이날 인사청문은 후보자의 도덕성 분야 검증을 하는 도덕성 평가와 교통연수원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으로 나눠 세밀하게 이뤄졌다.

충남교통연수원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도민의 교통질서와 안전을 위한 계도를 통해 교통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번 인사청문은 교통연수원의 운영 방안과 현안 문제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검증했다.

후보자에 대한 청문을 마친 후, 인사청문 특위 내부 협의를 거쳐 최종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는 '적합'의견으로 채택했다.

전익현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은 충남도지사의 공공기관장 임명전 임용후보자의 노력 및 자질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이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 검증으로 도민을 위한 성실하고 우수한 인재가 임명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교통안전과 운수종사자의 교통 문화 선진화를 위해 적합한 인물이 교통연수원장으로 임명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창모 후보자는 기관 운영 방향으로 교통안전 교육의 전문·체계화,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 기관 중장기 운영 전략 수립, 경영혁신 등을 발표했다.

'충남교통연수원장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는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에게 보고 후, 충남도지사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또한, 인사청문특위는 올해 후반기에 홍성익로 원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건의

### 3·1운동 상징인 유열사의 서훈등급 격상 위한 움직임 본격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격상을 위하여 충남지역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충청남도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1962년 당시 독립운동가에 대한 국가훈장은 기여도와 희생도를 평가하여 결정하였는데 유관순 열사에게는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을 추서했었다. 하지만 ‘3·1운동의 꽃’이자 ‘3·1독립만세 운동의 상징’인 열사의 훈격이 현재의 국민적 인식·평가 등에 비춰볼 때 현저히 저평가됐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한, “현재 상훈법은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훈의 취소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존의 서훈 취소

후 다시 수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친일행위를 한 다수의 인물들이 유관순 열사 보다 높은 1, 2등급의 대한민국 훈장을 받았으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일제에 붙잡혀 차디찬 서대문형무소에서 18세로 생을 마감한 유관순 열사의 지금의 서훈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으며 충절의 고장 충남도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로써 3·1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적인 인물이 유관순 열사인 만큼 ‘상훈법’이 반드시 개정되어 격에 맞게 서훈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가보훈처 등에 보내 충남도민의 결집된 마음을 전달할 계획이다.

## ‘국립국악원 중부분원’ 충남 유치 촉구

분원 유치로 전통문화 기반 구축 및 문화·예술 불균형 해소에 기여



충남도의회가 ‘국립국악원 중부분원’을 충남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활동에 힘쓰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1월 3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동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국악원 중부분원 충남 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립국악원’은 전통음악 문화자원 발굴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및 공연 개발을 위해 설립됐으며, 서울 본원을 비롯해 전북남원, 전남진도, 부산광역시 등 3곳의 분원을 운영 중에 있다.

한편, 국립국악원 중부분원 유치는 광주광역시, 강원도 정선군, 충청북도 영동군 등에서도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은 “도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는 높으나 전통공연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문화적, 예술적 혜택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있으며, “국립국악원 분원의 남부권 밀집 및 중부권의 배제로 인한 불균형으로 충남은 전통문화 기반 구축에서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남도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서울,

진도, 남원, 부산 축을 잇는 지리적 장점”이 있으며, “예로부터 백제 문화권의 중심으로 금강권과 내포권을 아우르는 중부권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교육의 집산지”라고 소개했다.

이에, “충청남도는 중부권 소리꾼들의 성장과 활동이 집중되었던 중고제 판소리의 발흥지로서 국악의 원형 보존 및 창조적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국악원의 설립 취지와도 일맥상통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공주시는 정치권과 시민이 함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 캠페인 및 중고제 국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국립국악원 중부분원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각 시·군에서도 국립국악원 중부분원 유치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충남지역에 국립국악원 중부분원이 유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및 국회의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국악원장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충남 유치 축구 건의문 채택

충남 후보지,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지 ... 접근성 면에서도 최적지



충남도의회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충남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활동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월 3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천안, 아산 유치지역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충남지역 유치 축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연령별 대표팀 선수와 지도자, 심판 등이 훈련과 교육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축구 외 다른 종목도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이다.

이번에 건립될 축구종합센터는 33만㎡ 규모로 훈련 및 교육시설을 갖추고, 관중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형 스타디움과 천연·인조구장 12면, 풋살구장 4면,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해 선수 3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숙소와 식당, 휴게실 등을 완비한 최신식 시설로서 예산 1,500억원을 들여 오는 2023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충남지역 내에 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힘을 보탠다는 복안이다.

이날 대표 발의를 진행한 김은나 의원은 “축구센터가 충남지역에 유치시 지역 브랜드 이미지 상승, 국제적인 도시로의 격상 등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220만 도민과 힘을 합쳐 반드시 우리지역으로 센터를 유치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 국제축구연맹(FIFA) U-17월드컵과 U-20월드컵, A매치 등 국제 경기를 성공리에 개최한 경험을 갖고 있어, 이번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신청한 타 24개 지자체보다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축구협회장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반드시 충남에 유치해야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충청남도 조성 촉구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추진으로 충남의 가치를 한 단계



충남도의회는 세계적인 반도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우수한 교통 인프라 등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충청남도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월 3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옥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8년까지 10년간 120조원의 자본이 투자되는 반도체 제조공장 4개와 50여개 협력업체가 동반입주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러한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신규투자 프로젝트는 올해 상반기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충남은 수도권 전철,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전국 어디서나 접근성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특히 천안에는 대학들이 밀집해 있어 젊고 우수한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을 포함한 연계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MEMC 등 반도체 관련 우수 기술을 보유한 많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소재하고 있어 타 지역보다 세계적으로 기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옥동 의원은 클러스터 유치와 관련해 “클러스터 유치는 단순히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220만 충남도민의 삶을 바꿀 일자리 창출이며, 충남의 가치를 한 단계 드높여 경제적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므로 클러스터를 반드시 충남에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 발생 원인 해결 방안 제시 및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수도권공장총량제 준수해 국토균형발전에 앞장서야



충청도의회는 1월 3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홍재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 및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으로 지목받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개선사업을 중단해달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홍 의원은 본 촉구 결의안을 통해 “충남은 본래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땅으로 기록된 곳인데, 지금은 미세먼지의 고통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되었다”며, “이러한 현상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더불어 국내 전력 생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충남 서해안 지역에 밀집해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석탄화력발전소가 수명이 다할 경우 폐기가 원칙이나,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10년 이상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수명 연장은 미세먼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에너지를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 회의에서는 또한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3개 시·도에 대해 새로 지을 공장의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과 증축을 규제하는 제도다 이 결의안은 홍 의원이 대표 발의 했으며, 결의안을 통해 홍 의원은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으며, 국토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산업측면에서 수도권 비대화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수도권공장총량제가 최근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마다 지방으로의 기업이전이 감소되는 추세에서 반도체특화클러스터 마저도 수도권 조성 시, 지방은 점점 자생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 이에 따른 국토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부의 ‘수도권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했다.

도의회에서는 본 결의안을 청와대 및 국회는 물론, 각 정당대표와 도내 발전3사, SK하이닉스 대표 등에게 보낼 계획이다.

## ‘이장·통장 수당 100% 인상’ 촉구

-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2004년 이후 15년 동안 한 번도 인상 없어
- 행정안전부 수당 기준액 변경이 문제해결 ‘열쇠’
- 18일 임시회에서 건의안 채택... 청와대 등 전달 예정



충남도의회가 3월 18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장·통장 수당 100% 인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건의안은, 정부가 이·통장에 대한 즉각적인 처우개선과 함께 민원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 및 실행 촉구가 그 골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20만원인 수당을 40만원으로 인상 ▲회의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통신비, 차량유지비 및 공용시설 무료이용 ▲관행적인 행사 및 업무 동원 금지 내용 등이 담겨있다.

방한일 의원은 “다양한 주민요구 수렴 및 민원해결은 물론 사회복지 등 행정수요 증가로 인해 이·통장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어 처우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1963년 월 500원으로 시작된 이장·통장 수당은 조금씩 인상되다가 2004년 20만원으로 확정 후 15년 동안 단 한 번 인상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며,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31.6%, 공무원임금 인상률은 29.5%가 넘어섰는데 이·통장 활동보상금은 제자리에 머물러있어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이·통장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읍·면·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보조하며 주민 지원을 위해 이장과 통장을 두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있는 활동보상금 기준액을 근거로 지자체마다 조례를 통해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20만원인 이·통장 수당 인상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변경돼야 가능하며, 이·통장 운영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지만, 수당에 관한 사항은 행안부 기준액을 따르기 때문이다.

한편, 전국이·통장협의회 충청남도지부(지부장 박종환)는 이번 건의안 채택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이·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15년간 동결된 수당이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및 각 정당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 태안 기업도시 조성부진 지적

- 충남도의회,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첫삽 뜬지 11년, 당초 투자금 절반도 못미쳐



충남도의회가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정상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3월 18일 개최된 제 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홍재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 결의안은 2005년 지정된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당초계획보다 민간투자 및 공공인프라 구축이 늦어져 기업도시 조성의 정상추진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홍재표 의원은 본 결의안을 통해 “태안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받았지 14년이 흐른 지금 태안 기업도시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반문하며, “당초 계획과는 달리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지정된 혁신도시들은 도시당 1조원 가까이 투자가 완료됐으며 이에 따른 기관이

진, 인구증가, 기업입주 등이 급증하며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시도 혁신도시들과 비교해 진행이 부진한 태안 기업도시 조성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한, 홍재표 의원은 “지난 두 번의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충청권 확대로 태안 기업도시 조성에 무관심했다”며, “태안은 환황해권 시대를 맞아 중국과의 인접성, 풍부한 관광자원 등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정부에서는 태안 기업도시 조성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며 기업도시 조성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본 결의안을 청와대 및 국회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각 정당 대표 및 현대자동차그룹 대표이사 등에게 보낼 계획이다.

## ‘지방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3월 18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연 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본 건의안에서는 간호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방·중소도시의 심각한 간호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지방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간호사 수급을 위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간호사 면허 관련 의료법은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만이 간호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김연 의원은 “충남도에서 만성적인 간호사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충남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 설치를 하려고 해도 교육부는 학과 신설 이후에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도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간호학과 신설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학과 신설의 실질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공공의료원 간호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해 놓여준 및 지방 중소도시의 공공 의료복지를 향상시키고, 미래 간호인력 수요 확대에도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본 건의안을 청와대 및 국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국가균형발전 계획 산업전략분야 충청권 반영 촉구 건의

• 조승만 의원… 충남 패싱 비판, 중앙정부에 충청권 균형발전 강력요구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산업전략분야 충청권 반영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조승만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난 2019년 1월 3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총 175조원 규모의 사업) 산업전략분야의 핵심사업인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 및 ‘혁신도시별 특화발전전략’에서 충청권이 배제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시·도, 특별자치시·도와 같이 균형 있게 충청권을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의원은 2012년 7월 1일부로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충남은 399.6km<sup>2</sup>(서울시 면적의 70%에 해당)의 면적이 줄고, 9만명 이상의 인구감소와 1조원 이상의 지역총생산액이 감소한 점을 들어 “세종시는 충남의 수혜이므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정부의

논리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경남지역만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부분 역시, ‘충남 소외론’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양승조 도지사는 최근 도의회에서 “6월에 깊은 논의를 거쳐 늦어도 9월 정기국회 때까지 이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도지사로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석환 홍성군수는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 및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을 촉구하는 ‘혁신도시 특별법 통과 촉구 충남·대전권 100만 서명운동’을 다음 달 18일 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결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및 국가균형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혁신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 ‘5·18 망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퇴출’ 촉구

•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 망언…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안



이선영 의원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 퇴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3월 29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망언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본 결의안 채택은 지난 2월 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는 망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그들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극우 보수 세력의 공청회를 후원하고, 역사를 왜곡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장렬하게 싸우다 산화해 간 선배 열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독재정권을 종식시킨 위대한 항쟁을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국가의 근간을

흐트러뜨리려는 망언을 한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을 국회에서 당장 퇴출시키라고 주장하고 그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자유한국당 지도부 및 그 세력들은 당장 온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선영 의원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리려는 일부 국회의원들을 5·18유공자 및 광주시민과 깨어 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결코 용서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고, 출당 시키며, 야당이 추진하는 의원 제명절차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제309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총 38건

조례안 27, 동의안 4, 규칙안 1, 건의안 4,  
결의안 2 / 원안가결 35, 수정가결 3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안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청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반영하고자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원 1인당 월정수당 지급액 (월 3,172,000원 → 월 3,254,000원)</li> </ul> </li> </ul>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청남도의회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li> </ul>
조례안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청남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li> </ul>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 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주민의 입법·예산 정책건의와 지역현안, 생활불편 사항 등 도민 의견을 신속 수렴하여 주민이 겪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15개 시·군에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li> </ul>
규칙안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회의규칙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분발언 시간을 30분에서 40분으로 10분 증가하여 운영</li> </ul> </li> </ul>
조례안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장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에너지센터 설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빈곤층 지원 근거 마련 등</li> </ul>
조례안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안	발의: 한영신(대표) 지정근, 이선영, 이영우, 오인환, 안장현, 황영란, 한옥동, 최 훈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공동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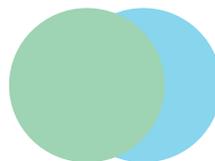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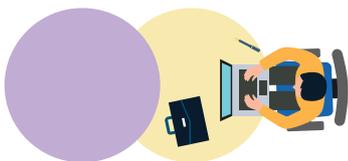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안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발의 : 이공휘(대표) 김 연, 안장현, 이영우, 한영신, 오인환, 이선영, 조길연, 정광섭, 김득응, 김명숙, 김한태, 김형도, 양금봉, 김명선, 오인철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계승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등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li> </ul>
조례안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소속직원들의 요청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고 특히,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개선하는 등 충청남도 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li> </ul>
조례안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 : 황영란(대표) 한영신, 여운영, 김옥수, 이영우, 김 연, 김기영, 김한태, 이공휘, 오인환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역량을 강화하고자 함.</li> </ul>
조례안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김옥수(대표) 이영우, 한영신, 황영란, 여운영, 김 연, 김기영, 김한태, 이공휘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li> </ul>
조례안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여운영(대표) 김 연, 김기영, 김옥수, 황영란, 김한태, 정병기, 최 훈, 이공휘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 내용 중 지원대상인 외국인주민의 정의를 보완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및 인권보호는 물론이고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주민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li> </ul>
조례안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 연(대표) 여운영, 김옥수, 황영란, 정병기, 최 훈, 김기영, 김한태, 이공휘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청남도 복지수준의 향상과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으로 도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li> </ul>
조례안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한태(대표) 최 훈, 김옥수, 여운영, 황영란, 김 연, 김기영, 정병기, 김영권, 김득응, 이공휘, 지정근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영주귀국주민의 사할린 방문 시 왕복 항공료 지원을 추가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을 “출생 또는 거주한”으로 개정</li> <li>- 영주귀국주민의 지원대상을 “영주귀국주민 1세”에서 “영주귀국주민 1세, 2세”로 영주귀국주민의 사할린 방문 시 왕복 항공료 지원 추가</li> </ul> </li> </ul>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동의안	충청남도어린이인성 학습원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의 위탁기간이 만료(2019. 3. 31.)됨에 따라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도 출연 연구기관과 재계약</li> </ul>
동의안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위탁기간이 만료(2019.3.31.)되어, 동 사무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단체)에 위탁</li> </ul>
조례안	충청남도 농어업회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김명숙(대표) 김득응, 김복만, 김명선, 김기서, 김영권, 방한일, 양금봉, 김영수, 김한태, 최 훈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업회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li> </ul>
조례안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양금봉(대표) 김득응, 김복만, 김명선, 김기서, 김명숙, 김영권, 방한일, 홍재표, 이영우, 김한태, 장승재, 전익현, 이계양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농수산인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유도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li> </ul>
조례안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양금봉(대표) 김득응, 김복만, 김명선, 김기서, 김명숙, 김영권, 방한일, 정광섭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정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민간 거버넌스 협력체계인 「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li> </ul>
조례안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김복만(대표) 김득응, 김명선, 김기서, 김명숙, 김영권, 방한일, 양금봉, 김석곤, 김 연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가공·제조·유통·판매·수출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인삼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li> </ul>
동의안	2019년도 제2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도지사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 - 충남국방벤처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1건): 100백만원</li> </ul>
조례안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전익현(대표) 지정근, 이계양, 김형도, 장승재, 이영우, 이선영, 조승만, 조철기, 김은나, 김기서, 한영신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청남도 도내 우수 한옥 보급 및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한옥 건축 보조금 지원범위 확대와 한옥 건축시 보조금을 상향 조정</li> </ul>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안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병역명문가를 지원</li> </ul>
조례안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 개편으로 인한 협의회 당연직 위원과 명칭 변경 등을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li> </ul>
조례안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상위법령의 조례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근거를 명확화하고,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차등적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li> </ul>
조례안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령 해양머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li> </ul>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발의: 김영수(대표) 오인철, 한옥동, 김석곤, 이종화, 김동일, 김은나, 조철기, 홍기후 의원	수정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과 대처역량 강화를 통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li> </ul>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발의: 김은나(대표) 오인철, 한옥동, 김석곤, 이종화, 김동일, 김영수, 조철기, 홍기후, 김 연, 전익현, 김명숙, 장승재, 지정근 의원	수정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li> <li>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및 협력체계의 구축 등</li> </ul> </li> </ul>
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9. 3. 1.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감 행정권한의 범위를 정비하고, 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현장중심의 지원체제를 강화하며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도모</li> </ul>
조례안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개설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으로, “고등학교”를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개정</li> </ul>
조례안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9. 3. 1자로 신설되는 1개교 및 1개원을 추가하고, 1개교 및 1개원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설: 홍성여자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아산공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li> <li>폐지: 덕명초등학교, 덕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li> </ul> </li> </ul>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동의안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천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신설. 폐지에 따라 중학교 학교군·중학구를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3.1.자 아산공수초등학교 개교에 따라 배방학군으로 설정</li> <li>- 2019.3.1.자 광흥중학교 폐지(광천중학교로 통폐합)에 따라 남학생에게만 적용하던 기존의 광천학군을 폐지하고, 여학생에게만 적용하던 광천학구의 남녀 구분을 삭제</li> <li>- 2019.3.1.자 덕명초등학교 폐지(광천초등학교로 통폐합)에 따라 기존 학구 학생은 광천학구로 유지</li> </ul> </li> </ul>
건의안	유관순열사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김 연(대표) 김옥수, 김기영, 김한태, 여운영, 정병기, 최 훈, 황영란, 유병국, 홍재표, 이공휘, 김은나, 김영수, 홍기후, 장승재, 김동일, 한옥동, 김명숙, 정광섭, 안장현, 양금봉, 김명선, 오인철, 지정근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목숨을 바쳐 항일 민족독립운동을 펼친 유관순 열사의 서훈을 역사적 평가와 국민적 인식에 맞게 등급을 상향하기 위하여 『상훈법』개정을 강력히 건의</li> </ul>
건의안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촉구 건의안	발의: 김은나(대표) 김영수, 홍기후, 이종화, 김석곤, 한옥동, 오인철, 김동일, 유병국, 김득응, 한영신, 정병기, 이공휘, 김 연, 지정근, 김영권, 여운영, 조철기, 안장현, 방한일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천안시를 축구종합센터 유치도시로 지정하여 줄 것을 촉구</li> </ul>
결의안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 홍재표(대표) 이공휘, 안장현, 조길연, 오인환, 오인철, 이선영, 한영신, 김은나, 한옥동, 조철기, 김석곤, 김영수, 김득응, 김복만, 김명선, 김기서, 김명숙, 김영권, 방한일, 양금봉, 홍기후, 김대영,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이계양, 김한태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으로 지목받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성능개선사업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li> </ul>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결의안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 홍재표(대표) 이공휘, 안장현, 조길연, 오인철, 오인환, 이선영, 이영우, 한영신, 한옥동, 김명선, 김기서, 김영권, 양금봉, 김득응, 김명숙, 방한일, 홍기후, 김대영, 김복만, 이종화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권공장총량제를 준수하지 않고, 수도권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li> </ul>
건의안	국립국악원 중부 분원 충남 유치 촉구 건의안	발의: 김동일(대표) 최 훈, 오인철, 한옥동, 김석곤, 이종화, 김영수, 김은나, 조철기, 홍기후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악을 통한 전통문화 인프라 구축 및 문화예술의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립국악원 중부 분원을 충청남도로 유치하여 줄 것을 촉구</li> </ul>
건의안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	발의: 한옥동(대표) 오인철, 김석곤, 이종화, 김동일, 김영수, 김은나, 조철기, 홍기후, 김연, 김득응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은 접근성이 우수하고 젊고 우수한 인력확보가 가능하며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등 상호 연계된 산업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로 최근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발표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건의</li> </ul>



# 제310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총 43건

조례안 25, 동의안 7, 예산안 1, 결의안 4, 건의안 3,  
기타 3 / 원안가결 36, 수정가결 7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기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등</li> </ul> </li> </ul>
기타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li> </ul>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청남도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의회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li> </ul>
결의안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li> </ul>
조례안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명 변경 및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 등</li> </ul> </li> </ul>
조례안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시행령 개정으로 압류한 재산이 예술품인 경우,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사항을 반영</li> </ul>
조례안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8.12.31.로 일몰 종료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2개 조문에 대하여 계속 세제지원이 필요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li> </ul>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동의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도지사	수정가결	<p>• 관리계획 내역 (단위: 건, 동, 필지, m<sup>2</sup>, 백만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연번</th> <th rowspan="2">회계 별</th> <th rowspan="2">안 건 명</th>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4">재 산 현 황</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종류</th> <th>수량</th> <th>면적</th> <th>재산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1</td> <td rowspan="3">일반</td> <td rowspan="3">(재)충남청소년 진흥원</td> <td rowspan="3">취득</td> <td>계</td> <td>2</td> <td>5,721</td> <td>9,600</td> <td rowspan="3">재심의건</td> </tr> <tr> <td>토지</td> <td>1</td> <td>3,221</td> <td>1,800</td> </tr> <tr> <td>건물</td> <td>1</td> <td>2,500</td> <td>7,800</td> </tr> <tr> <td rowspan="2">2</td> <td rowspan="2">"</td> <td rowspan="2">국립「기억의 숲」 조성사업 재산교환</td> <td rowspan="2">취득</td> <td>토지</td> <td>5</td> <td>977,627</td> <td>1,140</td> <td rowspan="2"></td> </tr> <tr> <td>처분</td> <td>토지</td> <td>2</td> <td>1,077,414</td> <td>1,243</td> </tr> <tr> <td rowspan="2">3</td> <td rowspan="2">"</td> <td rowspan="2">수산자원 연구소 태안사무소 신축부지 재산교환</td> <td rowspan="2">취득</td> <td>토지</td> <td>9</td> <td>3,000</td> <td>546</td> <td rowspan="2">재심의건</td> </tr> <tr> <td>처분</td> <td>토지</td> <td>10</td> <td>16,451</td> <td>483</td> </tr> <tr> <td rowspan="2">4</td> <td rowspan="2">특별</td> <td rowspan="2">태안소방서 신축부지 재산교환</td> <td rowspan="2">취득</td> <td>토지</td> <td>1</td> <td>10,582</td> <td>1,258</td> <td rowspan="2">재심의건</td> </tr> <tr> <td>처분</td> <td>토지</td> <td>11</td> <td>40,421</td> <td>1,220</td> </tr> </tbody> </table>	연번	회계 별	안 건 명	구분	재 산 현 황				비고	종류	수량	면적	재산가액	1	일반	(재)충남청소년 진흥원	취득	계	2	5,721	9,600	재심의건	토지	1	3,221	1,800	건물	1	2,500	7,800	2	"	국립「기억의 숲」 조성사업 재산교환	취득	토지	5	977,627	1,140		처분	토지	2	1,077,414	1,243	3	"	수산자원 연구소 태안사무소 신축부지 재산교환	취득	토지	9	3,000	546	재심의건	처분	토지	10	16,451	483	4	특별	태안소방서 신축부지 재산교환	취득	토지	1	10,582	1,258	재심의건	처분	토지	11	40,421	1,220
연번	회계 별	안 건 명	구분	재 산 현 황					비고																																																																			
				종류	수량	면적	재산가액																																																																					
1	일반	(재)충남청소년 진흥원	취득	계	2	5,721	9,600	재심의건																																																																				
				토지	1	3,221	1,800																																																																					
				건물	1	2,500	7,800																																																																					
2	"	국립「기억의 숲」 조성사업 재산교환	취득	토지	5	977,627	1,140																																																																					
				처분	토지	2	1,077,414		1,243																																																																			
3	"	수산자원 연구소 태안사무소 신축부지 재산교환	취득	토지	9	3,000	546	재심의건																																																																				
				처분	토지	10	16,451		483																																																																			
4	특별	태안소방서 신축부지 재산교환	취득	토지	1	10,582	1,258	재심의건																																																																				
				처분	토지	11	40,421		1,220																																																																			
동의안	2019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도지사	원안가결	<p>• 2019년도 제2회 출연 계획안 (단위: 천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소관 부서</th> <th>출연기관</th> <th>사 업 명</th> <th>출연금액</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미 래 성 장 과</td> <td rowspan="2">(재)충남 테크노파크</td> <td>충남 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td> <td>432,000</td> <td>국비 매칭</td> </tr> <tr> <td>충남 S/W 품질 역량강화</td> <td>109,000</td> <td>"</td> </tr> <tr> <td rowspan="6">산 업 육 성 과</td> <td rowspan="6">(재)충남 테크노파크</td> <td>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계속)</td> <td>3,633,000</td> <td>"</td> </tr> <tr> <td>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계속)</td> <td>3,674,800</td> <td>"</td> </tr> <tr> <td>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운영(계속)</td> <td>1,300,000</td> <td>자체</td> </tr> <tr> <td>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신규)</td> <td>3,500,000</td> <td>국비 매칭</td> </tr> <tr> <td>유동화회사보증(신규)</td> <td>2,500,000</td> <td>"</td> </tr> <tr> <td>신용보험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신규)</td> <td>1,600,000</td> <td>자체</td> </tr> <tr> <td rowspan="2">에너지과</td> <td rowspan="2">(재)충남 테크노파크</td> <td>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 (신규)</td> <td>1,000,000</td> <td>"</td> </tr> <tr> <td>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 기반구축 사업</td> <td>1,360,000</td> <td>국비 매칭</td> </tr> <tr> <td></td> <td></td> <td>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td> <td>800,000</td> <td>자체</td> </tr> </tbody> </table>	소관 부서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 고	미 래 성 장 과	(재)충남 테크노파크	충남 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432,000	국비 매칭	충남 S/W 품질 역량강화	109,000	"	산 업 육 성 과	(재)충남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계속)	3,633,000	"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계속)	3,674,800	"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운영(계속)	1,300,000	자체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신규)	3,500,000	국비 매칭	유동화회사보증(신규)	2,500,000	"	신용보험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신규)	1,600,000	자체	에너지과	(재)충남 테크노파크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 (신규)	1,000,000	"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 기반구축 사업	1,360,000	국비 매칭			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	800,000	자체																										
소관 부서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 고																																																																								
미 래 성 장 과	(재)충남 테크노파크	충남 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432,000	국비 매칭																																																																								
		충남 S/W 품질 역량강화	109,000	"																																																																								
산 업 육 성 과	(재)충남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계속)	3,633,000	"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계속)	3,674,800	"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운영(계속)	1,300,000	자체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신규)	3,500,000	국비 매칭																																																																								
		유동화회사보증(신규)	2,500,000	"																																																																								
		신용보험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신규)	1,600,000	자체																																																																								
에너지과	(재)충남 테크노파크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 (신규)	1,000,000	"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 기반구축 사업	1,360,000	국비 매칭																																																																								
		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	800,000	자체																																																																								
조례안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안	발의: 김 연(대표) 김기영, 김옥수, 김한태, 최 훈, 황영란, 여운영, 정광섭, 김동일 의원	원안가결	<p>• 한센병에 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센병 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p>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안	충청남도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 : 김기영(대표) 김옥수, 김한태, 최 훈, 황영란, 여운영, 김 연, 정광섭, 김동일 의원	원안가결	• 변화하는 저출산 정책 기조에 맞춰 다자녀 기준을 조정하여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 및 근거마련 등																																																				
조례안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의 : 김한태(대표) 김 연, 김옥수, 여운영, 정병기, 황영란, 최 훈, 김기영, 이공휘 의원	원안가결	• 「사회복지사업법」개정(2017.10.24.)에 따라 기존 「충청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동의안	2019년도 제2회 저출산 보건의복지실 출연계획안	도지사	원안가결	• 2019년도 제2회 출연 계획안 (단위 : 천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소관 실과</th> <th>출연기관</th> <th>사 업 명</th> <th>출연금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사 회 복지과</td> <td>충남복지재단</td> <td>충남복지재단 기본재산 조성</td> <td>700,000</td> <td>신규</td> </tr> <tr> <td>충남복지재단</td> <td>충남복지재단 운영</td> <td>1,100,000</td> <td>신규</td> </tr> </tbody> </table>	소관 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사 회 복지과	충남복지재단	충남복지재단 기본재산 조성	700,000	신규	충남복지재단	충남복지재단 운영	1,100,000	신규																																						
소관 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사 회 복지과	충남복지재단	충남복지재단 기본재산 조성	700,000	신규																																																				
	충남복지재단	충남복지재단 운영	1,100,000	신규																																																				
동의안	2019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도지사	원안가결	• 2019년도 제2회 출연 계획안 (단위 : 천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소관 실과</th> <th>출연기관</th> <th>사 업 명</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문 화 정책과</td> <td>충남역사 문화연구원</td> <td>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td> <td>150,000</td> </tr> <tr> <td>"</td> <td></td> <td>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td> <td>100,000</td> </tr> <tr> <td>"</td> <td></td> <td>내포문화진흥포럼</td> <td>50,000</td> </tr> <tr> <td>"</td> <td>충남문화 산업진흥원</td> <td>충남문화재단 출연금</td> <td>400,000</td> </tr> <tr> <td>"</td> <td></td> <td>충남문화재단 운영</td> <td>400,000</td> </tr> <tr> <td>"</td> <td></td> <td>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td> <td>1,000,000</td> </tr> <tr> <td>"</td> <td></td> <td>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td> <td>200,000</td> </tr> <tr> <td>"</td> <td></td> <td>충남영상위원회 운영</td> <td>100,000</td> </tr> <tr> <td>"</td> <td></td> <td>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2차)</td> <td>500,000</td> </tr> <tr> <td>"</td> <td></td> <td>충남 글로벌 게임센터 조성</td> <td>200,000</td> </tr> <tr> <td>관 광 진흥과</td> <td>백제문화재 추진위원회</td> <td>백제문화재 출연금</td> <td>780,000</td> </tr> <tr> <td>"</td> <td></td> <td>제65회 백제문화재 프로그램 개발·운영</td> <td>780,000</td> </tr> </tbody> </table>	소관 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금액	문 화 정책과	충남역사 문화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150,000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	100,000	"		내포문화진흥포럼	50,000	"	충남문화 산업진흥원	충남문화재단 출연금	400,000	"		충남문화재단 운영	400,000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1,000,000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200,000	"		충남영상위원회 운영	100,000	"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2차)	500,000	"		충남 글로벌 게임센터 조성	200,000	관 광 진흥과	백제문화재 추진위원회	백제문화재 출연금	780,000	"		제65회 백제문화재 프로그램 개발·운영	780,000
소관 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금액																																																					
문 화 정책과	충남역사 문화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150,000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	100,000																																																					
"		내포문화진흥포럼	50,000																																																					
"	충남문화 산업진흥원	충남문화재단 출연금	400,000																																																					
"		충남문화재단 운영	400,000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1,000,000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200,000																																																					
"		충남영상위원회 운영	100,000																																																					
"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2차)	500,000																																																					
"		충남 글로벌 게임센터 조성	200,000																																																					
관 광 진흥과	백제문화재 추진위원회	백제문화재 출연금	780,000																																																					
"		제65회 백제문화재 프로그램 개발·운영	780,000																																																					
조례안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방한일(대표) 김명선, 김영권, 김명숙, 양금봉, 김득응, 김기서, 김복만, 안장현, 조길연, 여운영, 김영수, 김은나 의원	원안가결	•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농산물 우수식재료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안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영권(대표) 김득응, 김복만, 김명선, 김기서, 김명숙, 방한일, 양금봉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리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등 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li> </ul>
조례안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영권(대표) 김득응, 김복만, 김명선, 김기서, 김명숙, 방한일, 양금봉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li> </ul>
조례안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기서(대표) 김득응, 김복만, 김명선, 김명숙, 김영권, 방한일, 양금봉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융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여 농촌경제의 활성화 및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li> </ul>
조례안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득응(대표) 김복만, 김명선, 김기서, 김명숙, 김영권, 방한일, 양금봉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청남도 내 가축의 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li> </ul>
조례안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득응(대표) 김복만, 김명선, 김기서, 김명숙, 김영권, 방한일, 양금봉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외 경기 위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을 통하여 영세사업자 인건비 부담 완화는 물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 및 사회안전망으로의 편입 등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li> </ul>
조례안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오인철(대표) 김득응, 김복만, 김명선, 김기서, 김명숙, 김영권, 방한일, 양금봉, 김 연, 이공휘, 김은나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청남도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고용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li> </ul>
조례안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안장현(대표) 오인철, 오인환, 이공휘, 양금봉, 장승재, 김명숙, 조철기, 이선영, 김영권, 김기서 의원	수정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교육을 공급자(도지사) 위주의 관점에서 수요자(도민) 중심 관점으로 전환하여, 도민이 원하는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의 권리를 명시</li> </ul>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안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안	발의 : 정광섭(대표) 김동일, 김명숙, 양금봉, 지정근, 조승만, 이계양, 장승재, 김대영, 김옥수, 황영란, 김기영, 오인철, 김득응, 김복만, 김명선, 김기서, 김명숙, 김영권, 방한일, 양금봉, 김 연, 이공휘, 김은나 의원	수정가결	•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의 질서와 목적에 맞는 사용을 위하여 주차장 유상사용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조례안	충청남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장승재(대표) 지정근, 정광섭, 조승만, 이계양, 김대영, 김형도, 전익현, 김명숙 의원	원안가결	• 해양생태계의 체계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道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조승만(대표) 전익현, 김은나, 정광섭, 지정근, 이계양, 김형도, 김대영, 장승재 의원	원안가결	• 충청남도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충청남도 지역으로 반입되는 수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제품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정광섭(대표) 김동일, 김명숙, 안장현, 양금봉, 지정근, 조승만, 이계양, 장승재 의원	원안가결	•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동의안	2019년도 제1회 해양수산물 출연계획안	도지사	원안가결	<p>• 2019년도 제2회 출연 계획안 (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소관실과</th> <th>출연기관</th> <th>사 업 명</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해 양 수산국</td> <td>보령 해양머드 박람회 조직위원회</td> <td>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td> <td>100,000 (도비 50,000 시비 50,000)</td> </tr> </tbody> </table>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금액	해 양 수산국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 조직위원회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100,000 (도비 50,000 시비 50,000)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금액									
해 양 수산국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 조직위원회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100,000 (도비 50,000 시비 50,000)									
동의안	충청남도 광역이동 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p>• 위탁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성 : 현재 시·군별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제약을 해소하고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사무를 민간위탁</li> <li>- 기간 : 2019.10.1. ~ 2021.12.31.(2년3개월)</li> <li>- 비용 : 총 26억원 ('19년 2억원, '20년 12억원, '21년 12억원)</li> <li>- 방식 : 조달청 일반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li> </ul>								
기타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도지사	원안가결	• 2019년 기준 택시운송원가 산정을 위하여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금 분석 용역」을 실시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요금 조정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5·18 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	발의 : 조철기(대표) 오인철, 한옥동, 김동일, 김영수, 김은나, 홍기후, 이공휘, 안장현, 김기서, 이선영, 김명숙, 김영권, 김형도, 전익현, 홍재표, 오인환, 이영우, 한영신, 김득응, 김명선, 양금봉, 장승재, 김대영, 이계양, 조승만, 지정근, 김 연, 김한태, 여운영, 정병기, 최 훈, 황영란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의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li> </ul>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발의 : 홍기후(대표) 오인철, 한옥동, 김석곤, 이종화, 김동일, 김은나, 김영수, 조철기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강사 등이 장애의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li> </ul>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한옥동(대표) 오인철, 김석곤, 이종화, 김동일, 김은나, 김영수, 조철기, 홍기후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청남도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li> </ul>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발의 : 홍기후(대표) 오인철, 한옥동, 김석곤, 이종화, 김동일, 김은나, 김영수, 조철기 의원	수정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 환경 친화적 생활능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li> </ul>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9. 3. 1.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불일치하게 된 현행 조례의 부서 및 직위 명칭 등을 일괄개정</li> </ul>
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신설 국과 부서 명칭 변경·신설 사항을 반영</li> </ul>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예산안	2019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도지사	수정가결	<p>• 총 규모 : 6조 7,345억원(기정예산 대비 7.42%, 4,651억원 ↑)                      - 일반회계 : 6조 1,706억원(기정예산 대비 7.50%, 4,306억원 ↑)                      - 특별회계 : 5,639억원(기정예산 대비 6.52%, 345억원 ↑)</p> <p>(단위 : 억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추경 예산</th> <th colspan="2">기정 예산</th> <th colspan="2">증 감</th> </tr> <tr> <th>금액</th> <th>구성비</th> <th>금액</th> <th>구성비</th> <th>금액</th> <th>%</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67,345</td> <td>100</td> <td>62,694</td> <td>100</td> <td>4,651</td> <td>7.42</td> </tr> <tr> <td>일반회계</td> <td>61,706</td> <td>91.63</td> <td>57,400</td> <td>91.56</td> <td>4,306</td> <td>7.50</td> </tr> <tr> <td>특별회계 (8개)</td> <td>5,639</td> <td>8.37</td> <td>5,294</td> <td>8.44</td> <td>345</td> <td>6.52</td> </tr> <tr> <td>  도청소재도시건설</td> <td>88</td> <td>0.13</td> <td>88</td> <td>0.14</td> <td>-</td> <td>-</td> </tr> <tr> <td>  균형발전</td> <td>473</td> <td>0.70</td> <td>443</td> <td>0.71</td> <td>30</td> <td>6.77</td> </tr> <tr> <td>  안면도관광지개발</td> <td>172</td> <td>0.26</td> <td>59</td> <td>0.09</td> <td>113</td> <td>191.53</td> </tr> <tr> <td>  의료급여기금</td> <td>3,329</td> <td>4.94</td> <td>3,304</td> <td>5.27</td> <td>25</td> <td>0.76</td> </tr> <tr> <td>  광역교통시설</td> <td>168</td> <td>0.25</td> <td>157</td> <td>0.25</td> <td>11</td> <td>7.02</td> </tr> <tr> <td>  학교용지부담금</td> <td>249</td> <td>0.37</td> <td>203</td> <td>0.32</td> <td>46</td> <td>22.96</td> </tr> <tr> <td>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td> <td>215</td> <td>0.32</td> <td>203</td> <td>0.32</td> <td>12</td> <td>5.77</td> </tr> <tr> <td>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td> <td>945</td> <td>1.40</td> <td>837</td> <td>1.34</td> <td>108</td> <td>12.89</td> </tr> </tbody> </table>	구분	추경 예산		기정 예산		증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	총 계	67,345	100	62,694	100	4,651	7.42	일반회계	61,706	91.63	57,400	91.56	4,306	7.50	특별회계 (8개)	5,639	8.37	5,294	8.44	345	6.52	도청소재도시건설	88	0.13	88	0.14	-	-	균형발전	473	0.70	443	0.71	30	6.77	안면도관광지개발	172	0.26	59	0.09	113	191.53	의료급여기금	3,329	4.94	3,304	5.27	25	0.76	광역교통시설	168	0.25	157	0.25	11	7.02	학교용지부담금	249	0.37	203	0.32	46	22.96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215	0.32	203	0.32	12	5.77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945	1.40	837	1.34	108	12.89														
구분	추경 예산		기정 예산			증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																																																																																																						
총 계	67,345	100	62,694	100	4,651	7.42																																																																																																						
일반회계	61,706	91.63	57,400	91.56	4,306	7.50																																																																																																						
특별회계 (8개)	5,639	8.37	5,294	8.44	345	6.52																																																																																																						
도청소재도시건설	88	0.13	88	0.14	-	-																																																																																																						
균형발전	473	0.70	443	0.71	30	6.77																																																																																																						
안면도관광지개발	172	0.26	59	0.09	113	191.53																																																																																																						
의료급여기금	3,329	4.94	3,304	5.27	25	0.76																																																																																																						
광역교통시설	168	0.25	157	0.25	11	7.02																																																																																																						
학교용지부담금	249	0.37	203	0.32	46	22.96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215	0.32	203	0.32	12	5.77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945	1.40	837	1.34	108	12.89																																																																																																						
동의안	2019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지사	수정가결	<p>• 총 규모 : 1조 173억원(기정예산 대비 2.22%, 221억원 ↑)</p> <p>(단위 : 억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2019년 제1회</th> <th colspan="2">2019년 당초</th> <th colspan="2">증 감</th> </tr> <tr> <th>재회</th> <th>구성비</th> <th>당초</th> <th>구성비</th> <th>금액</th> <th>%</th> </tr> </thead> <tbody> <tr> <td>기 금 (12개)</td> <td>10,173</td> <td>100</td> <td>9,952</td> <td>100</td> <td>221</td> <td>2.22</td> </tr> <tr> <td>  통합관리기금</td> <td>662</td> <td>6.51</td> <td>664</td> <td>6.67</td> <td>△2</td> <td>△0.26</td> </tr> <tr> <td>  지역개발기금</td> <td>5,781</td> <td>56.83</td> <td>5,781</td> <td>58.09</td> <td>-</td> <td>-</td> </tr> <tr> <td>  재정안정화기금</td> <td>461</td> <td>4.53</td> <td>242</td> <td>2.43</td> <td>220</td> <td>90.77</td> </tr> <tr> <td>  재해구호기금</td> <td>352</td> <td>3.46</td> <td>352</td> <td>3.54</td> <td>-</td> <td>-</td> </tr> <tr> <td>  재난관리기금</td> <td>610</td> <td>6.00</td> <td>610</td> <td>6.13</td> <td>-</td> <td>-</td> </tr> <tr> <td>  중소기업육성기금</td> <td>1,792</td> <td>17.61</td> <td>1,794</td> <td>18.02</td> <td>△2</td> <td>△0.10</td> </tr> <tr> <td>  남북교류협력기금</td> <td>40</td> <td>0.39</td> <td>40</td> <td>0.40</td> <td>-</td> <td>-</td> </tr> <tr> <td>  농어촌진흥기금</td> <td>257</td> <td>2.53</td> <td>257</td> <td>2.58</td> <td>-</td> <td>-</td> </tr> <tr> <td>  사회복지기금</td> <td>70</td> <td>0.69</td> <td>70</td> <td>0.70</td> <td>-</td> <td>-</td> </tr> <tr> <td>  식품진흥기금</td> <td>81</td> <td>0.79</td> <td>76</td> <td>0.76</td> <td>5</td> <td>6.47</td> </tr> <tr> <td>  양성평등기금</td> <td>38</td> <td>0.38</td> <td>38</td> <td>0.38</td> <td>-</td> <td>-</td> </tr> <tr> <td>  청소년육성기금</td> <td>29</td> <td>0.28</td> <td>29</td> <td>0.29</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2019년 제1회		2019년 당초		증 감		재회	구성비	당초	구성비	금액	%	기 금 (12개)	10,173	100	9,952	100	221	2.22	통합관리기금	662	6.51	664	6.67	△2	△0.26	지역개발기금	5,781	56.83	5,781	58.09	-	-	재정안정화기금	461	4.53	242	2.43	220	90.77	재해구호기금	352	3.46	352	3.54	-	-	재난관리기금	610	6.00	610	6.13	-	-	중소기업육성기금	1,792	17.61	1,794	18.02	△2	△0.10	남북교류협력기금	40	0.39	40	0.40	-	-	농어촌진흥기금	257	2.53	257	2.58	-	-	사회복지기금	70	0.69	70	0.70	-	-	식품진흥기금	81	0.79	76	0.76	5	6.47	양성평등기금	38	0.38	38	0.38	-	-	청소년육성기금	29	0.28	29	0.29	-	-
구분	2019년 제1회		2019년 당초			증 감																																																																																																						
	재회	구성비	당초	구성비	금액	%																																																																																																						
기 금 (12개)	10,173	100	9,952	100	221	2.22																																																																																																						
통합관리기금	662	6.51	664	6.67	△2	△0.26																																																																																																						
지역개발기금	5,781	56.83	5,781	58.09	-	-																																																																																																						
재정안정화기금	461	4.53	242	2.43	220	90.77																																																																																																						
재해구호기금	352	3.46	352	3.54	-	-																																																																																																						
재난관리기금	610	6.00	610	6.13	-	-																																																																																																						
중소기업육성기금	1,792	17.61	1,794	18.02	△2	△0.10																																																																																																						
남북교류협력기금	40	0.39	40	0.40	-	-																																																																																																						
농어촌진흥기금	257	2.53	257	2.58	-	-																																																																																																						
사회복지기금	70	0.69	70	0.70	-	-																																																																																																						
식품진흥기금	81	0.79	76	0.76	5	6.47																																																																																																						
양성평등기금	38	0.38	38	0.38	-	-																																																																																																						
청소년육성기금	29	0.28	29	0.29	-	-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건의안	이장·통장 수당 100% 인상 촉구 건의안	발의 : 방한일(대표) 김득응, 김복만, 김명선, 김기서, 김명숙, 김영권, 양금봉, 유병국, 안장현, 조길연, 홍재표, 오인환, 이선영, 이영우, 한영신, 김 연, 김옥수, 김기영, 김한태, 여운영, 정병기, 최 훈, 황영란,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김대영, 김형도, 이계양, 조승만, 지정근, 오인철, 한옥동, 김석곤, 이종화, 김동일, 김영수, 김은나, 조철기, 홍기후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장·통장의 활동수당이 2004년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이 지나도록 동결된 상태로 있는 등 이·통장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여, 이에 이장·통장에 대한 처우개선책과 함께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건의</li> </ul>
결의안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 도시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	발의 : 홍재표(대표) 안장현, 이영우, 이선영, 한영신, 김 연, 김옥수, 김한태, 여운영, 최 훈, 오인환, 황영란, 정병기, 조길연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이 당초 계획보다 부진함에 따라 정상추진을 촉구하고 대책수립을 마련할 것을 건의</li> </ul>
건의안	지방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 김 연(대표) 최 훈, 조승만, 이계양, 이공휘, 홍재표, 오인환, 안장현, 황영란, 김옥수, 정병기, 전익현, 김한태, 여운영, 김기영, 김명숙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의료기관의 안정적 간호사 수급을 위하여 『의료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li> </ul>
결의안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 아산 정차역 설치 촉구 결의안	발의 : 지정근(대표) 장승재, 이계양, 조승만, 김 연, 전익현, 정광섭, 김석곤, 김동일, 김은나, 오인철, 이종화, 한옥동, 홍기후, 조철기, 김복만, 김명선, 김기서, 김명숙, 김영권, 방한일, 안장현, 이영우, 한영신, 이선영, 김옥수, 김한태, 여운영, 정병기, 최 훈, 황영란, 양금봉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택~오송 복복선 건설사업』에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고속철도 수혜 확대 및 지역발전 촉진을 위하여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를 건의</li> </ul>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건의안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산업전략분야 충청권 반영 촉구 건의안	발의 : 조승만(대표)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한옥동, 전익현, 김명숙, 김대영, 이계양, 장승재, 오인철, 김은나, 양금봉, 홍재표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9년 1월 ‘제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세부추진 과제 중 대규모 투자 사업에 충청권이 제외되고, 영·호남에 편중되어 충청권을 국가균형발전 계획’ 산업전략분야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li> </ul>
결의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망언 규탄 결의안	발의 : 이선영(대표) 안장현, 한영신, 김 연, 김영권, 조승만, 오인철, 홍재표, 최 훈, 황영란, 김한태, 정병기, 김기서, 이영우, 홍기후, 이계양, 유병국, 조철기, 김득응, 장승재, 전익현, 양금봉, 이공휘, 김명선, 여운영 의원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18망언을 일삼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며 국민 앞에 엄중히 사과하고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li> </ul>



연구모임

2019. 1. 11. 김명숙 의원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 제3차 연구모임 열고 현장감 있는 사회적경제 추진정책 모색



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지난 1월 10일 제3차 회의를 열어 '2019년도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 연구모임은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올해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과 사업 예산을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명숙 의원 외에 김명선 의원, 김기서 의원, 안장현 의원, 박찬무 회원(사회적기업 즐거운 밥상 대표), 김혜경 회원(충남사회적경제 협의회 대표) 등도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서 자리에 참가한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and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사전준비 과정을 2019년도 역점과제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속발전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숙 대표는 "2019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사회적경제 예산은 짜임새 있게 잘 편성하였는데, 사업대상이

없어 미집행된 예산의 사례도 볼 수 있었다"며, "올해는 관련 사업의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의 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자를 확대 발굴해 사각지대를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 참여한 김기서 의원은 "지난해 지방계약 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범위를 사회적기업에게는 5천만원으로 확대시켰다"며,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 정부부처의 조달에서도 확대 건의해 사회적경제 기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장현 의원은 "사회적경제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분야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연구 모임 회의나 토론회, 워크숍 등 네트워크 추진 시 초청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관련 담당자도 참석해 교육 분야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무 회원은 "창업교육센터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교육수료에서 창업단계로 이어져야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 조직 사이에 공공구매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 부분을 줄여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혜경 회원은 "사회적경제 분야는 그동안 주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업종 변경 등의 자생적인 연구역량이 따르지 못했다"며, "지역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기초 환경 조사와 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 연구모임은 도의회 의원 6명과 충남의 현장 활동가, 정책연구 및 행정가 등 1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연구모임

2019. 1. 11. 김 연 의원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개선방안 모색

시·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장 등과 허심탄회 소통의 자리 마련



충남도의회가 2019년도 예산심사 시 나타난 다문화 가족 관련 문제 사업들에 대하여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김연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김옥수, 김기영, 여운영, 정병기, 황영란, 김한태, 최훈 의원 등은 1월 1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과 여성가족정책관 등 관계자와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추진되는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시군센터장, 도 관계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발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는 총인구대비 비율이 4.8%인 104,854명으로 전국 1위이며, 인원수로는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전국 4위이다.

2013년 6만8639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

하다는 것이 도의회의 판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의 목소리는 크게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의 사회 통합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 증액 등으로 압축됐다.

김연 위원장은 올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계획을 살핀 뒤, 다문화가족의 의사가 반영된 현장 및 수요자 중심 사업 강화를 주문하면서 일회성 전시 행사는 폐지하고 취·창업 등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을 당부했다.

그리고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문화가족 등의 문제를 종합해 발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외국인 주민 등이 도내에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 통합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모임

2019. 1. 31. 이공휘 의원

## ‘재정거버넌스 구축 위한 연구모임’ 창립

- 충남도 재정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도의회의 역할 강화방안 도출
- 충남도 재정운영과정에 도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도의회 역할 강화



충남도의회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도의회의 역할 강화방안 연구에 나선다. 이공휘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충청남도 재정운영과정에서 도의회의 재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이 지난 1월 31일 충남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도원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본 연구모임은 충남도 재정운영과정에서 도민, 집행부, 도의회가 재정거버넌스를 구축해 재정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날 열린 첫번째 모임에서 (사)재정성과연구원 강인재

원장은 “충남도의 재정운영에 있어 충남도의회는 재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참석자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강조하며, 도민·도의회·집행부의 재정운영 역량강화와 이에 따른 재정책임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청남도의 전체적인 재정운영과정에 도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도의회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본 연구모임은 향후 워크숍 및 토론회를 거쳐 연구사례집을 발간·배포해 연구성과들을 공유하게 된다.

## 연구모임

2019. 1. 31. 김 연 의원

## ‘트라우마 센터’ 건립 위한 연구 박차

- 김연 의원, ‘데이터기반 충남 복지·보건 정책연구회 발족식’ 개최
-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해 복지·보건 연구에 ‘데이터과학’ 접목
- 충남형 트라우마센터 건립 필요성 및 방향 설정



충남도의회가 ‘복지수도 충남 구현’ 및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위한 연구를 주도한다.

김연 위원장은 1월 31일 개최된 ‘데이터 기반 충남 복지·보건 정책연구회’ 발족식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보건 연구에 ‘데이터과학’을 접목시켜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공공의 복지·보건 분야 정책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데이터와 전문성이 융·복합 되었을때 유의미한 인사이트 (insight·통찰력)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발족식에는 ‘충남도 데이터 기반 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공휘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이석범 충청남도 광역 치매센터장, 김영훈 한국교원대 교수, 송근창 예산군 장애인복지관장, 최진영 SK Geovision 팀장, 김기흥 충남연구원 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복지, 보건, 농촌, 사회적경제, 지리, 데이터 사이언스 등 20명의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로 구성된 본 연구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등 두 개의 상임위가 상호협력해 시너지를 창출하게 된다.

김연 의원은 “복지와 보건은 사회 안전망 구축의 기본적 가치이며 이 분야의 정책 수요는 한 분야의 전유물이 아닌 초연결적이고 지능화된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며, 다학제적인 연구모임 발족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충남 복지·보건 수요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히 충남형 트라우마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방향을 설정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연 의원은 “연구모임 내적으로는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들이 효과적인 연계를 위한 네비게이터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외적으로는 충남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사구시적인 정책 개발에 힘쓸 것”이라며 연구모임 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연구모임

2019. 2. 11. 여운영 의원

# ‘풍요롭고 쾌적한 충남’ 만들 정책 찾는다

도의회 문복위 ‘문화·관광 정책 연구모임’ 발족... 의원·전문가 17명 참여



충남도의회가 도민 모두의 ‘풍요롭고 쾌적한 삶’ 구현을 위해 문화·관광 정책을 발굴해 나아갈 연구모임을 꾸렸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월 1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충남 문화·관광 정책 연구모임’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여운영 의원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으며 도의원과 도내 문화·관광 분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했다.

도 의원은 김연 위원장과 김옥수·김기영·김한태·정병기·최훈·황영란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전문가로는 충남연구원 정지은 박사가 간사직을 맡기로 하였으며, 전문가로는 최돈정 박사, 충남문화

산업진흥원 김동규 본부장, 김제곤 책임연구원, 충남관광협회 김인배 회장, 정명진 이사, 도 문화정책과 허창덕 팀장, 관광진흥과 강병락 팀장 등이 참가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현장답사와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도민 모두가 풍요롭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문화·관광 정책을 찾을 계획이다.

여운영 의원은 “연구모임은 충남의 문화·관광 자원과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도정 활용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의원은 또 “연구모임은 특히 도정 현안 중 하나로, 미술관과 박물관이 결합한 복합문화시설인 충남도립미술관의 건립 방향을 논의하고, 성공적인 건립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연구모임

2019. 2. 13. 한옥동 의원

## 『제대로 교육 연구모임』 창립총회 개최

- 교육위원회 한옥동 의원 대표 맡아... 13일 창립
- 충남교육 방향 및 공교육 정상화 발전방안 마련



지난 2월 13일 108호 회의실에서 『제대로 교육 연구모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충남교육 방향 및 공교육 정상화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항해를 시작했다.

교육위원회 한옥동 의원이 대표를 맡은 본 연구모임은 향후 충남 실정에 맞는 교육방향 설정 및 발전방안 연구를 위한 정보교류는 물론 이를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모임 구성원으로는 교육위원회 김석곤, 김은나 도의원을 비롯해 대학교수, 현직 교장·교사, 교육연구사 등 교육 전문가 총 14명이 참여해 행복한 학교와 학생 중심 충남교육 지원 방향을 연구하면서 공교육 정상화 발전 방향 마련 등에 진력을 다한다.

한편, 본 연구모임 구성원으로는 충남교육연구정보원 고명환 교육연구사가 간사를 맡고있으며 회원으로는 순천향대학교 최근택·정치봉 교수, 충청대학교 이한웅

교수, 천안 오성고 조영종 교장, 배방고 조미경 수석 교사 및 권차남 부장교사, 천안여고 유성재 부장교사, 카케학원 고토 요시코 한국 부지국장, 충남교육연구정보원 김경호 교육연구부장, 충남교육청 김유태 학교정책과 장학관 등이 참여한다.

연구모임에서는 향후 조사연구,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해 충남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을 개발·지원할 수 있는 교육정책 연구·발굴을 통해 충남도교육청과 충남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증대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옥동 대표는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지원해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학생중심 학교교육과정을 정착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게 될 것”이며, “본 연구모임을 통해 더욱 공부하고 성장하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모임

2019. 3. 6. 양금봉 의원

## 농어촌 복지 문제 해결 위해 발벗고 나서

- ‘충남도의회 농촌복지 체계구축 위한 연구모임’ 활동 실시
- 충남 홍성군 홍동면 소재 ‘우리마을의료생협’ 및 ‘밤맑도서관’ 방문



충남도의회가 도내 농어촌 복지 지원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제3차회의 개최 및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농촌복지체계구축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양금봉 의원)은 3월 6일 홍성군 홍동면에 소재한 우리마을의료생협인 ‘우리동네의원’과 ‘밤맑도서관’을 찾아 운영상황 청취 후 제3차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연구모임 회원들은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우리동네의원 최문철 사무국장으로부터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운영상황 등에 대한 설명 청취 및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양금봉 의원은 “홍성군 홍동면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의료생협을 만들어 복지에서 중요한 부분인 의료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살기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지원정책이 지자체에서 일률적으로 만들어 실시해 할 것이 아니라, 농어촌 주민들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윤금이 연구모임 회원은 “의료생협을 3년간 유지하면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을 해결 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노력과 협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촌은 마을단위의 지역화로 사업이 이뤄져야 사람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모임에서는 농어촌 복지를 위한 토론회를 갖고 우리동네의원과 밤맑도서관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 연구모임

2019. 3. 13. 김영수 의원

##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위한 연구활동 돌입

• 김영수 의원, '충청남도 학교인권문화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



충청남도의회가 도내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 및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연구에 나섰다.

김영수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충청남도 학교인권 문화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3월 13일 충남도의회 108호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연구모임은 교육위원회의 조철기 의원 및 황영란 의원을 비롯해 문화복지위원회 최훈 의원과 안장현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영 의원 등 6명의 도의원을 비롯해 도교육청 담당자와 인권 전문 변호사, 교수, 활동가 등 21명이 참여한다.

특히, 본 연구모임에는 천안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충남학생인권연합회' 대표 조정연 학생이 참여해 실효적인 학교인권 보장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모임은 발족식 이후 곧바로 1차 세미나를 개최해

지역 학생인권 실태에 대한 분석과 토론을 진행했으며, 향후 서울시 등 선진 사례를 연구하는 2차 세미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연구모임에서는 앞으로 사례 연구, 토론회, 교육주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정책 연구 및 자유, 평등 연대의 인권 가치가 각급 학교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청은 물론 지역 인권시민단체와도 협력할 계획이다.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수 의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도내 모든 학교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할 것이며, 본 연구모임을 통해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존엄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의회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모임

2019. 3. 18. 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 활성화 및 시·군 균형발전 정책 제시

- ‘내포신도시 활성화 및 시·군 균형발전 정책 연구모임 발족’... 조승만 의원 대표
- 정체된 내포 신도시 문제점 찾아 개선 방안 도출... 내포 신도시 활성화 기여



충남도의회가 내포신도시 정체 및 일부 시·군 지역의 인구집중을 비롯한 구도심 쇠퇴로 인한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에 나선다.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은 3월 18일 ‘내포신도시 활성화 및 시·군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조승만 의원이 대표를 맡은 이 모임에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 장승재·정광섭·정김대영·이계양 의원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선영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황영란 의원, 교육위원회 김영수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청운대학교 박현옥·최인호 교수, 충남도청 미래산업국 장동호 내포신도시발전과장, 최문희 균형발전담당관을 비롯해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염원하는

지역주민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었다.

‘내포신도시 활성화 및 시·군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정체된 내포신도시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내포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심 공동화 원인 등을 분석해 시·군 균형발전을 앞당길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만 대표는 “그동안 내포신도시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고 하지만 현실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내포신도시 활성화 및 시·군 균형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연구모임은 오는 11월까지 현장 견학 및 정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 연구모임

2019. 3. 19. 방한일 의원

## ‘농민수당제’ 도입 논의 시작

- 19일 도의회에서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출범
- 방한일 의원 대표 맡아



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19일 소회의실에서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출범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본 연구모임은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방한일 의원이 대표를 맡았으며,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김복만, 김명선 의원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조승만 의원 및 교육위원회 김영수 의원 등 6명과 농민회, 활동가, 농협 이사 등 총 14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연구모임에서는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농민수당제 현황 및 사례 소개’ 발표가 진행되어 ‘농민수당제’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타 지역 농민수당제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토론회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농민수당제에 대한 회원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 및 향후 연구모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방한일 의원은 “충남은 전통적인 농업 도(道)이지만,

우루과이 라운드 등 개방농정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충남 농촌을 위해 획기적인 정책도입이 시급하다”며, “현재 농민수당제 도입 및 논의 등의 물결 속에 본 연구모임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식량원예과 박지흥 과장은 “농촌의 고령화, 공동화인 현재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할지 고민 중이며, 농민에 대해 어떻게 소득을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진시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회’ 김희봉 위원장은 “보편적 가치로 농민수당제를 접근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및 대상을 명확히 해야 무임승차 방지 등 모두에게 도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의원은 “오늘 열린 첫 회의에서 쏟아진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앞으로 현장방문, 정책탐방 및 토론회 등을 거쳐 11월에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연구모임

2019. 3. 19. 한영신 의원

## ‘행정 서비스 혁신사례 연구모임’ 창립

- 충청남도 행정 서비스 혁신 위한 도의회 역할 강화방안 도출
- 국내외 다양한 성공사례 연구 통한 충청남도의 혁신정책 강화



충남도의회가 행정 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한영신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행정 서비스 혁신사례 연구모임’을 3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행정 서비스 혁신사례 연구모임’은 충남도의원 및 행정 서비스 관련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 모임에서는 행정 서비스 혁신에 대한 도민의 갈망 해소를 위해 국내외 행정 서비스 혁신사례 등을 분석해 역동적인 혁신정책 마련에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또한, 연구모임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행정 서비스에 대한 혁신적 태도 및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이다.

3월 19일 열린 창립총회 겸 첫 모임에서 회원들은 서비스디자인 관점에서 본 행정혁신 사례에 대한 연구

발표 청취 후 행정서비스 혁신 관련 전문가와 심도있는 토론시간을 가졌다.

한영신 의원은 “높아지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걸맞게 행정서비스 혁신사례를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과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혁신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연구모임은 향후 워크숍 및 토론회를 거쳐 연구사례집을 발간 배포해 연구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 연구모임

2019. 3. 29. 전익현 의원

## ‘상권 활성화 위한 도시재생전략 구축 연구모임’ 발족

-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전략 구축 방안 연구 시동... 전익현 의원 대표 맡아
- 농촌지역 소도시의 인구감소 및 상권 붕괴 실태 연구... 개선방안 모색



충남도의회가 상권 붕괴로 인한 지역경제 어려움 해소 방안을 위해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전략 구축 연구’에 시동을 걸었다.

전익현 의원은 지난 3월 29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전략 구축 연구모임’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전익현 의원이 대표를 맡은 이 모임에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 이계양 의원 및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양금봉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서천군의회 노성철·이현호·김아진 의원, 목원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과 이재우 교수, 충남도청 건설교통국 김두기 도시재생팀장, 서천군 노희량 지역경제과장 및 김춘선 도시건축과장,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임준홍 연구원을 비롯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염원하는 지역주민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었다.

본 모임의 대표를 맡은 전익현 대표는 “서천군 등은 지역경제가 쇠퇴하고 있어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전략’ 구축 시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부흥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지역 소도시 인구감소 및 경기불황 등으로 지역상권의 붕괴와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본 연구모임에서는 서천군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시키겠으며, 이렇게 도출된 결과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연구모임에서는 오는 11월까지 워크숍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의정토론회

2019. 1. 30. 김옥수 의원

## 다문화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모색위한 토론회의 장 마련

- 충청남도 다문화 청소년 지원 활성화 방안 위한 의정 토론회 개최
- 다문화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 위한 도민들의 관심 및 협력 촉구

충남도의회는 1월 30일 서산시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충청남도 다문화청소년 지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옥수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토론회는 다문화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찾아보고자 토론회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번 의정토론회는 조삼혁 충청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김재우 공존플랜 책임연구원이 ‘다문화청년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류순희 서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우북남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옥수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완규 다문화청소년 부모, 이병례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국제교육담당 장학관, 정낙도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다문화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재우 공존플랜 책임연구원은 “지난 10여 년간 다문화청소년들의 이주배경은 다양해짐은 물론 중·고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진학, 진로, 취업, 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 지원 활성화 방안’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정체성 및 지역사회적응을 위한 애착형성, 교육평등의 실현, 다문화적 감수성 향상 및 다문화 인식제고 등의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이밖에도 김재우 공존플랜 책임연구원은 “지역사회 내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청소년을 중심으로 모든 청소년이 균등하고 평등한 교육적 기회를 확보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상호문화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발표 했다.

또한, 류순희 서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지역여건에 따라 다문화 정책학교, 교육지원시설, 전담교원 등의 역할과 정책 비중을 다르게 하고 지역 특화 모델을 개발해 확산 시킬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학생의 교육실태와 교육격차 원인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다문화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북남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원은 “학교 밖 다문화청소년의 정책 확대와 진로·진학 관련 사업 전문성강화 조치, 연계와 협력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확대”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옥수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다문화청소년이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문화, 교육, 취업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고 실질적·지속적 지원이 요구된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였다.

한편, 충남도의회에서는 이날 제시 및 논의된 내용을 부서에 전달하고 의회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 의정토론회

2019. 2. 8. 이공휘 의원

## “청년실업 해소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한 충남형 신성장동력 마련 필요성” 토론회의 장 마련

- 충남도의회, “충남창업보육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가진 중장기 발전계획 필요성 역설

충남도의회는 2월 8일 오후 2시 천안 한들문화센터에서 ‘충남보육센터 활성화를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남창업보육센터 활성화 및 역할 확대 방안, 충남 창업생태계 선순환 활성화 방안, 충청남도의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인프라 구축 및 청년창업 지원 필요성 등과 관련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제조업·대기업·수출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혀, 새로운 활력이 요구되는 시점에 충남 주력 산업의 성장정체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위기 국면에 처해 있어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의 유출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충남지역의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업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정의봉 한국창업보육협회장, 손동철 백석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 윤종언 충남테크노파크원장, 김태민 PV612 창업경영자문 대표, 김준호 매드퓨처 대표, 신동헌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장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공휘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남창업보육센터협의회 황규일 회장이 “충남창업보육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충남보육센터협의회 황규일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충남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현황 및 센터를 통해 앞으로 지역 기술창업 생태계를 위한 전진기지로써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창업활성화의 경쟁력 기반을 다져 창업기업 지속 생존율과 기업성장으로 일자리 창출의 역할을 위한 전략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어, 정의봉 회장은 한국창업보육협회의 역할 및 현황을 소개하며 “충남창업보육센터의 활성화 방안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창업실습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대학창업펀드 투자기업을 입주시켜 대학 실천창업지원 강화 방안과 다양한 기관들과 창업보육센터의 협의체를 구축해 지역의 창업지원 역량 및 창업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동철 센터장은 “창업보육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지원인력이 필요하며, 충남 창업보육센터의 개선방향으로는 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육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취업률 해결, 지역 산업 활성화 등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종언 원장은 충남의 창업 생태계 선순환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지역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 대학이 사업환경변화에 뒤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을 비롯해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확대, 창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의 운영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태민 대표는 창업보육센터 역할 확대방안에 대해 “교육기능과 멘토링 기능을 수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및 정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실적과 성과평가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준호 대표는 “2019년 창업지원사업 규모가 1조 1,18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가운데 실제 창업활동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약 25%센트이며, 3년 이상 유지를 하는 기업은 약 0~5%로 유기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전문성 있는 심사를 위해 대기업 경력자 아닌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파악하고 있는 평가자의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현 실장은 청년실업 해소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청년창업의 필요성이 부각되나 실제적인 청년창업 비중 미미하며, 앞으로 충청남도의 혁신성장과 청년의 도내 정착을 위해 창업 인프라 구축 및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종합적 청년 창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도에서는 조직개편을 통한 창업 전담팀을 신설해, 충남 청년 창업 프라자 조성·운영 등 청년창업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창업인프라 조성과 충남형 청년창업가 발굴 및 육성 등 혁신적인 청년창업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한국창업보육협회 정의봉 회장의 ‘창업보육협회 역할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방안 도출’ ▲백석대학교 손동철

창업보육센터장의 ‘창업보육센터 개선방안 연구’ ▲충남 테크노파크 윤정언 원장의 ‘충남지역 중소기업(창업) 생태계와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어, ▲창업경영자문사 PV612 김태민 대표의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역할 확대 방안’ ▲매드퓨처 김준호 대표의 ‘충남창업보육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모색’ ▲충청남도 경제통상실 신동현 실장의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과 미래’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끝으로, 이공휘 위원장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사무실을 비롯한 시설 제공과 경영·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충남만의 특성화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정책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토론회에서 방청객들과 토론자들은 충남도의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서울·경기 지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창업허브 등 전문적인 창업시스템을 도입해 충남 주력산업 육성과 연계한 벤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적 특성을 살린 역점사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모든 내용을 종합해 충청남도과 각 시·군에 전달함은 물론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 의정토론회

2019. 2. 12. 방한일 의원

## ‘예산 소상공인 활성화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 예산 소상공인 지원방향 모색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방안 논의



충청남도의회는 2월 12일 예산문화원 강당에서 ‘예산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의 상호공유 및 토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충청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충남연구원 이민정 책임연구원이 ‘예산군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이민정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예산군의 상업을 둘러싼 내·외부 요인으로 지역 내 7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한의지, 상인 고령화, 워라밸 및 여가 확대 기조로 인한 관광 수요 성장 가능성, 내포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잠재적 소비계층 증가, 인구 감소 및 인구고령화로 인한 수요감소, 최저임금, 원재료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적 지원방향으로는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생업’이 최소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 및 영위될 수 있도록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소상공인 세제혜택, 프랜차이즈 적절 규제, 노란우산공제 적극 활용, 상권특성 파악, 수익창출 능력 확보 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종기 충청남도 자영업지원팀장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위해 “보부상 콜센터 운영,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경영환경 개선 지원, 온라인마케팅 홍보비용 등을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영상 공주대학교 산업유통학과 교수는 행정기관의 소상공인 지원체계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예산군청 산하에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관의 부채를 짊어지며, 향후 중소상인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배치,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남수 공주대학교 생물산업공학부 교수는 ‘예산군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지역상점의 운영을 철저히 시장경제의 논리를 따르는 사유재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정주여건을 강화하는 일정한 공공성을 인정하고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규 예산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정책 강화’를 위해 “임금근로 퇴직자 재취업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창업 억제, 상인정신 회복 및 강화,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방안 수립, 생계형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소상공인 관련 법의 개선방안 모색” 등 소상공인 정책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조세제 예산시장상인회 회장은 ‘예산시장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향한 대안’ ▲강선구 예산군의회 의원은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고찰’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방한일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로서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지역 주민이 힘들어지게 되며, 이는 지역 차원의 경제위기와도 직결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보조금을 들여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펼친다 한들 실효성이 없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복지 강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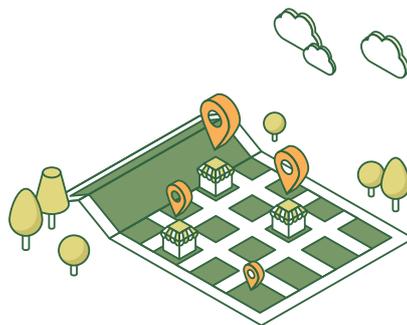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예산군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이민정 책임연구원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간접 지원을 통합한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한 지역상권 재생,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 소상공인 및 주민들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충청남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정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 김기서 의원을 비롯해 이상용 예산부군수, 예산군의회 이승구 의장 및 군의원, 예산군 소상공인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의정토론회

2019. 2. 21. 이선영 의원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 지방자치강화 위해 생활민주주의와 생활정치가 자리매김 되어야



충남도의회가 도민들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2월 21일 충남개발공사 대회의실에서 이선영 의원의 요청으로 ‘충남민주시민교육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선영 의원은 “지방 자치가 강화되려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통해 생활 민주주의와 생활정치가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회에 참가한 박성호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제정과 시민들의 자발적 네트워크,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서울특별시의회 서윤기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사를 돌아보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이룩했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 전담기구

를 설치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영 의원은 “충남지역 민주시민의식 함양 및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공동체,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연대조직,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민주시민 주체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토대로 민주시민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남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는 박진용 충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박수정 논산YWCA사무총장, 이필구 경기도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장, 황정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의정토론회

2019. 3. 5. 김 연 의원

## 충남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 위한 토론회 개최

###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위한 젠더거버넌스 구축 방안 논의



충남도의회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3월 5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다목적실에서 김연 의원의 요청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젠더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연 의원은 "우리 충남의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발제자로는 임원정규 성평등이음센터장이, 토론자로는 김영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수석연구위원, 문지희 논산 마을활동가, 최연숙 당진시의회 의원, 박주영 연합뉴스 기자, 신희정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태규 충청남도 출산보육정책과장이 나섰다.

우선, 임원정규 성평등이음센터장은 '저출산, 젠더관점으로 교차'의 주제발표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의 시작점은 '씨실과 낱실'처럼 엮인 것으로 인식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부지원 등 관련있는 모든 분야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충남도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여성들이 살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김영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이 참여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젠더거버넌스'와 관련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영주 연구위원은 "기존 저출산 정책은 패러다임의 한계에 봉착했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 교육, 주거, 돌봄 등 삶의 전반적인 환경과 여건에서 격차 및 불평등을 개선 해야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지희 논산마을 활동가는 '저출산과 초고령 지역의 마을공동체를 위한 거버넌스'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충남도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과 결과 보고 등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출산의 원인으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결혼 연령 상승으로 인한 미혼 인구 증가,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 경제 및 사회활동 참여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육아를 지원하는 서비스는 부족해 여성이 활동을 하며 육아를 해야하는 환경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최연숙 당진시 의원은 "저출산, 고령사회의 여성단체 역할 제고", 신희정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박주영 연합뉴스 기사는 "바보야, 문제는 저출산이 아니야", 이태규 충청남도 출산보육정책과장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 구현"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김연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 충남의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각을 마련해 주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며, 도의회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서에 전달하고,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 포토의정



01 1월 2일

유병국 의장, 홍재표 제1부위원장, 이종화 제2부위원장, 이공휘 행사위원장, 김연 문복위원장, 조승만 의원, 황영란 의원, 지정근 의원은 충훈탑 참배를 시작으로 의정업무수행의새로운 각오를 다짐했다.

02 1월 3일 유병국 의장은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충남 신년교례회에 참석했다.

03 1월 10일 유병국 의장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기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04 1월 11일 유병국 의장, 김형도 운영위원장은 도의회 접견실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교육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05



06



07



08

- 05** 1월 18일 유병국 의장, 김동일 의원, 최훈 의원은 공주 고마나루에서 열린 2019 군밤축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 06** 1월 25일 유병국 의장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 07** 1월 28일 유병국 의장은 대전시의회에서 충청권 시·도의회의장단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 08** 2월 12일 김명숙 의원은 충남도립대학교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09



10



11



12

- 09** 2월 12일 유병국 의장은 도의회 접견실에서 박재진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 10** 2월 14일 유병국 의장은 아산 온양제일호텔에서 열린 3.1 운동 100주년 기념 범도민간담회에 참석했다.
- 11** 2월 18일 유병국 의장은 도의회 접견실에서 호서대 강준모 특임부총장과 충남도정·교육행정에 대한 정책연구 및 상생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 12** 2월 20일 유병국 의장, 이공휘 행자위원장, 김명선 의원, 김기서 의원, 김명숙 의원, 김영권 의원, 안장현 의원, 이선영 의원, 조철기 의원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5.18 만연 규탄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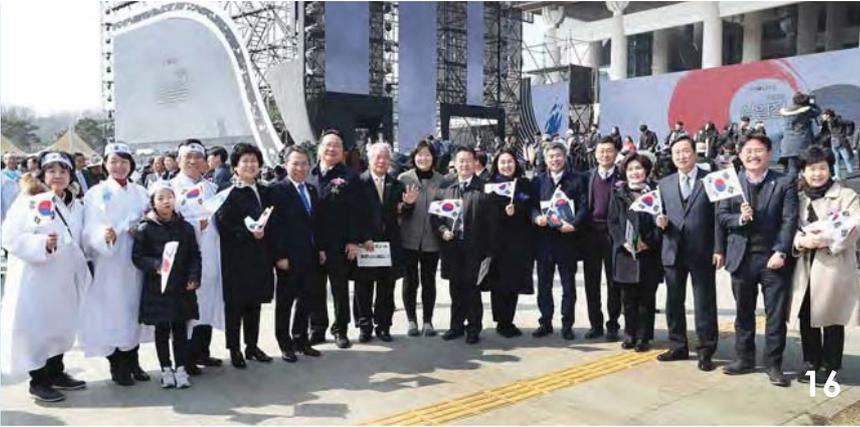


15



14

- 13** 2월 22일 오인철 교육위원장, 이귀희 행자위원장, 한옥동 의원, 김은나 의원은 도청 브리핑룸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시 유치 결정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 14** 2월 25일 유병국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SK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시 유치 결과를 규탄하고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 15** 2월 28일 김연 의원은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트 약속대상'에서 지방선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6 3월 1일

유병국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천안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100주년 삼일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17 3월 4일

홍재표 제1부위원장, 이종화 제2부위원장, 오인철 의원, 김명선 의원, 김득응 의원, 김기서 의원, 김영권 의원, 이선영 의원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지방의정리더십과정 개강식에 참석했다.



17



18



19

18 3월 6일 유병국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를 방문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점검했다.

19 3월 13일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오인철 위원장, 김명숙 의원, 양금봉 의원, 김기서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 3월 16일

김기영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도전 한국인 10인 대상 시상식에서 충남 큰바위 얼굴상을 수상했다.



20



21

**21** 3월 19일

유병국 의장, 김연 문복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다미르 쿠센 주한 크로아티아 대사 접견을 하고 환담을 나눴다.



22

**22** 3월 20일 유병국 의장, 오인철 교육위원장, 김명숙 의원, 김은나 의원, 조철기 의원, 한옥동 의원은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대한민국 축구종합 센터 유치 기자회견을 가졌다.

**23** 3월 20일 유병국 의장은 도의회 접견실에서 자나르 아카예프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원을 접견했다.



**24** 3월 22일

유병국 의장은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25** 3월 26일

유병국 의장, 오인환 의원은 26일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충남형 수소경제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26** 3월 26일

유병국 의장, 장승재 안건해소위원장, 김명선 의원, 김명숙 의원, 김기서 의원은 JM골드스퀘어에서 열린 충남농어업협회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 느낌여행, 충남



## 한산모시문화제

**기간** 2019. 6. 7. ~ 6. 10.  
**장소** 서천군 한산모시관 일원

2019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선정된 〈한산모시문화제〉는 한산모시의 역사가 살아 있는 한산모시관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한산모시짜기〉의 우수성을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 관광객 등에게도 널리 알려 한산모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한편으로는 축제로서 볼거리도 풍성하게 만들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산업형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부여 서동 연꽃 축제

**기간** 2019. 7. 5. ~ 7. 7.  
**장소** 서동공원 공남지

세계유산 도시이자 백제역사의 중심 부여! 10만평 연지에 피어난 천만송이 연꽃 부여의 여름이 가장 빛나는 순간, 2000년을 건너 낸 오가하스연과 연꽃이 국화인 7개 나라와 함께한다.



## 보령머드축제

**기간** 2019. 7. 19. ~ 7. 28.  
**장소** 대천해수욕장

매년 7월에 개최되는 지구촌 최대의 여름축제! 축제에 참여하는 순간부터 국적, 인종, 언어, 연령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즐기는 체험형 축제이다.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충청남도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신뢰로 보답하는 책임의정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